

정용섭 목사의 소소한 이야기

정용섭

월드컵 축구대회/ 신문/ 절대적 세계/ 대화/ 대구
지하철 참사/ 비/ 자전거를 타며/ 협심증/ 잠자리/
가을 햇빛 비/ 라스트 사무라이/ 행복한 순간/ 즐겁게
놀자/ 줄기세포 시대 앞에서/ 밤비/ 하양에서 안동
북후면까지/ 연예 공화국/ 월드컵 소고/ 이상 난동/
영성과 세상 경험/ 외로운 사람들에게/ 인간과 지령이/
인간은 모두 죽는다/ finding never land



목차

월드컵 축구대회	3
신문	6
절대의 세계	8
대화	9
대구 지하철 참사	11
비	17
자전거를 타며	23
협심증	29
잠자리	34
가을 햇빛, 벼	40
라스트 사무라이	45
고비용의 삶 벗어나기	52
행복한 순간	58
즐겁게(재미나게) 놀자!	62
즐기세포 시대 앞에서	68
밤비	72
하양에서 안동 북후면까지	74
연예 공화국	77
월드컵 소고	81
이상 난동	85
아이스 맨	89
영성과 세상 경험	95
외로운 사람들에게!	99
인간과 지령이	103
인간은 모두 죽는다	106
finding never land	110

월드컵 축구대회

지난 6월 한 달은 온통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로 온 나라가 난리통이었습니다. 1승도 만만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태극전사들이 16강, 8강, 4강까지 거칠 것 없이 밀고 나갔습니다. 월드컵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이번이라고 하는군요. 4강에 들어간 날 대통령은 단군 이래 가장 기쁜 날이라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붉은 악마는 아이엠에프, 대통령 아들 구속 등등으로 의기소침해 있던 4천5백만 남한 국민들의 기(氣)를 한껏 높여 주었다고들 합니다. 길거리 응원 7백만이라는 숫자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느낀 감동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한 다른 목소리는 아주 작게 들립니다. 오마이뉴스에 보니까 러시아 출생 귀화자인 박노자라는 젊은 교수 한 사람이 광기 운운 했더군요. 작은 교회 작은목사는 고액의 족집게 강사를 데려다가 높은 점수를 받는 일부의 입시 행태와 비교했더군요. 기독교 사상 7월 호에서 이현주 목사는 놀이와 노름을 분간해야 한다는 말로 넌즈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인권운동 하는 분들이 이번 현상의 이면을 제기했다가 네티즌들에게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도 한때 축구선수가 되려고 했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지만 이번 월드컵 현상 앞에서 마음이 별로 상쾌하지 못했습니다. 전국민의 열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더불어서 즐거운 일에 굶주려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락에 불과한 일에 모든 인생을 건다는 건 비극입니다.

니다. 월드컵은 함께 모여 공을 차면서 즐겁게 놀면 그 것으로 끝입니다. 이긴 팀은 진 팀을 격려하고 진 팀은 이긴 팀을 축하해 주면 그만입니다.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놀이'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승부보다는 그 놀이가 제공해 주는 즐거움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놀이가 철저하게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승리의 의미를 여러 계기로 과대포장합니다. 무언가 핫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4강 아니라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에게 대한 편견도 역시 그대로입니다. 밤 10시, 11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해야만 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상황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방송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지역별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하기로 했으면서 국민성금을 모을 작정인가 본데, 매스컴은 늘 이런 식입니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중을 조작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정책이 우선합니다. 또한 그것의 토대라 할 수 있는 학력 간의 소득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일들이 우선합니다.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에 내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축구를 하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단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야 취미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겠지요. 이제는 더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삶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기성세대와 사회 지

**도총 인사들의 책임이고, 이번 우리 축구 대표선수들은
장한 일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박수를 보냅니
다. (2002.6.30.)**

신문

“한손에는 성서를, 다른 한손에는 신문을!”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 대단한 말도 아닌데 거장이 내뱉었다고 해서 특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되는 현상이 약간 재미있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신학자와 설교자는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지평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텍스트에만 치중하다가 삶의 구체성을 놓치게 되고, 콘텍스트에만 치중하다가 삶의 본질을 상실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중앙지와 지방지 섞어서 매일 3가지 정도의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문 읽기가 그쳤습니다. TV는 말할 것도 없구요. 완전히 손을 끊었다는 말은 아니지요. 옛날에는 꼼꼼히 들여다보았지만, 지금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티브이 9시 뉴스도 거의 안 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읽으나 안 읽으나, 보나 안 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흡사 시시한 시트콤처럼 약간씩 주제만 바뀌지 근본적인 것은 늘 제자리 걸음이더군요. 이미 2백 년 전에 소로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문이 재미있으려면 그 안에 역사적 진보(변화)가 부각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당장 오늘 신문을 펼쳐 보십시오. 1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역만 바뀔 뿐,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보가 눈에 띄이지 않으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욕망을 더욱 부추기

는 이 시대정신에 의해서 이 역사를 퇴보시키는데도 모르죠. 퇴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도 고착화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고착화는 곧 퇴보나 똑같지요.

교회만이 이 시대를 향해서 그런 역사의 진보를 증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역사의 진보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종착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에서 선취된 종말이 단지 교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교회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02.7.30.)

절대의 세계

물고기에게 물이 보일까요? 물고기도 아닌 주제에 단정할 수는 없어도, 아마 물고기는 물의 세계 안에 들어가(갇혀) 있기 때문에 물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태나 현상을 바르게 식별하려면 그 세계(범주)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지상의 삶(생명)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세계를 떠나야만 하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계 안에 들어와(피투되어) 있는 우리는 죽기 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바울도 잘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겠지요. 동양의 많은 구도자들은 그런 각(覺)을 위해서 한평생 구도정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명증하게 포착했을까요? 아니면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접어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성서와 기독교 2천년 역사가 의존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연하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들을 서구의 관념놀이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아무 영양가 없는 언어유희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런 사유보다도 밥이 더 절실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리얼리티이니까 말입니다. (2002.8.30.)

대화

사람들의 대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주장만 한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동창회나 계모임같은 자리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자기 남편이나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면 그 이야기를 약간 듣는 척하다가 자기 남편과 자식 이야기에 열을 올립니다. 입담의 능력에 따라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이 구별되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의 경험이나 틀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석하고 반응할 뿐이지 대화 자체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자리가 무슨 시장판처럼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자주 나가는 동네 테니스 모임도 대충 그렇습니다. 운동하다가 쉬는 시간에, 또는 테니스를 마치고 식사를 같이하는 자리에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TV의 대담프로그램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대화도 약간 격이 다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가 없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예컨대 주5일 근무제나 의약분업 같은 주제로 대담한다고 합시다. 일단 양측으로 맞선 사람들은 때로는 논리적으로 또는 우격다짐으로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개할 뿐이지 대화의 존재론적인 힘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측은 계속 평행선만 달릴 뿐입니다. 그런 토론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고 받아들이면서,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사람들을 별로 못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언어에 담지된 존재론적인 진리의 세계를 인정한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언어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열어놓는 것이 참된 대화가 아닐까요?

설교도 역시 성서와 독자의 대화, 설교자와 청중들의 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설교 현장에서는 진리가 드러나는 길로서의 대화는 실종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청중들은 그저 구경꾼으로 남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말솜씨나 구경하든지, 거기에 등장하는 예화에만 흥미를 갖습니다. 이러나 이런 흥미도 한 두 번이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설교가 지루해지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 암시에 빠져버립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경험에 빠져들 위험이 많다는 점에서보다 더 철저하게 자기를 진단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기의 작은 경험으로 세계 전체를 재단하지 말고, 오히려 자유와 진리의 영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열어놓아야 합니다. (2003)

대구 지하철 참사

지난 2월18일에 일어났던 대구지하철 참사 사고는 한편으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사태가 참혹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사람들의 잘못이 컸다. 수백 명의 사상자에 얽힌 사연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눈시울을 적시게 된다. 지하철 운행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 즉 기관사와 상황실 직원들이 보여준 그 무대책은 또한 뭔가? 그 순간에 조금만 바른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 급박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은 부당한 태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가장 나쁜 경우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이렇듯 공연한 말을 하는지 모른다. 이 사태에 대한 이런저런 진단 이야 많은 전문가들이 내릴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 공방이 전개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이 계획되고 실천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고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는 얻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학은 이 재앙 앞에서 무슨 말 할 거리가 있을까?

성서의 고대인들도 역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많은 재앙을 만난 경험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아홍수>와 <욥>이야기일 것이다. 노아홍수 이야기에는 두 가지 주제가 토대하고 있다. 하나

는 이런 재앙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
 하고 유지시키는 근원이라는 것이다. 고대인들은 거의
 인과응보 사상에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홍수로 인
 한 인류의 멸망을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했다는 것은 아
 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성서만이
 아니라 바벨론 설화에도 등장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든 재앙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
 다. 대재난은 인류 역사 이후로 어디서나 일어났다. 지
 구 자체의 역사는 그런 자연적 대재난의 과정이기도 하
 다. 빙하기가 찾아와서 거의 모든 생명체가 멸망당한 역
 사를 죄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혜성
 과의 충돌로 인한 재앙도 역시 그렇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를 인간의 죄와 연결시킨 성서 기자들의 관점은 틀
 렸다는 말인가? 오늘 성서를 읽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그 재
 앙은 분명히 죄에 대한 징벌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해석학이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입장이 오늘 우리에
 게 까지 문자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
 늘의 문제는 우리가 해석해야만 한다. 다만 노아 홍수
 이야기를 전승시켜온 그들의 해석학적 입장을 우리가 충
 분히 이해하고, 그런 해석이 담아내려고 하는 실질을 아
 주 진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죄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당한 지하철 참사가 인간의 실
 존적인, 또한 구조적인 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억원 상당하는
 객차의 단가를 5억원으로 낮추었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

을 경시하는 오늘 우리의 가치관에 의한 당여한 결과이다. 그것은 곧 죄가 아닐까? 만약 객차의 내장재가 선진국 수준으로 사용되었다면 최소한 2, 30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면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노아홍수의 두 번째 주제는, 사실상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살리고 이후로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즉 생명에 대한 약속이다. 성서기자들은 그 흑독한 대재앙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붙들었다.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더 핵심적으로는 생명 창조자이며 유지자이며 완성자라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의 전승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전히 계속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이 지구상에 충만하게 하리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곧 생명에 대한 희망과 동일한 지평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생명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으며, 이런 생명에 대한 희망을 견지하는 사람은 비록 구체적인 기독교 신앙의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부분적이거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 지향적 태도를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실정법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은 묻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는 처리하고, 서로 도울 일은 도와 나가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을 직접 당한 사람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생명

에 대한 희망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옴 이야기는 약간 까다롭다. 의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던 옴의 가족사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참기 힘든 악성 피부병에 걸렸고, 아내는 도망갔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만도 못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죽은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만 옴의 경우에는 사실상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옴의 세 친구는 아주 그럴 듯한 논리로 옴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한다. 자네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것이네. 이런 재앙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당장 회개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자네를 용서하고 살 길을 인도하실 거네. 노아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대인들은 이런 재앙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옴의 친구들이 옴에게 한 말은 원칙적인 면에서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었다. 옴의 죄를 강조한 친구들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옴 사이에 길고 긴 논쟁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옴기이다. 옴기 기자는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서술하면서,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지는 않는다. (나는 옴기를 몇 번 읽어보았지만 아직도 모든 문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옴기 기자는 이런저런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즉 진리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한다. 공연히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행위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결국 옴기는 세계와 생명현상의 신비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라는 가르침이 아닐까? 인간은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를 기다리라는 가르침이 아닐

까? 아니면 진리를 담아낼 수 없는 인간 언어의 한계를 말하려는 것일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한 재앙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온갖 학설과 풍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쓸모가 없다. 그런 학설이라는 것이 대개 어떤 비슷한 사건들을 하나의 틀로 정형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아니라 얼추 맞기만 한다. 욥의 친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재앙과 죄의 동일시도 역시 어떤 사건과 결과를 두루뭉술하게 재단한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겉으로는 대개 비슷하게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므로 이런 학설과 풍설로 이러쿵저러쿵 하다보면 헛다리 잡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욥기서는 많이 떠드는 인간들에게 입을 다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욥의 시대보다 훨씬 계몽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역시 궁극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모기 한 마리의 존재론적 근원과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마당에 어떤 사람의 운명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노아 이야기는 희망을, 욥 이야기는 기다림을 가리킨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 앞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대재앙에 직면해있지만 우리는 생명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구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황하거나 공허한 자기변론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 기다림은 곧 겸손이며 기도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무책임 태도가 아

닌가 하고 의아해할지 모르겠다. 양가주망 없이 어떻게 고단한 역사 앞에서 책임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고 비판할 수 있다. 기다림과 기도라는 것은 양가주망이나, 현실도피나 하는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대립적 구도로 비판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지 기다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곧 양가주망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진실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상사람들처럼 이런 문제를 흥미거리로, 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겠다는 공격적인 자세로 접근하지 말고, 즉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나 짧은 지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보다 큰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상의 설명이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온전한 신학적 서술이 될 수 있을까? 천만에. 아주 짧은 인식론적 도구를 사용해서 이 사태의 핵심에 접근해 보려고 했지만, 단지 변죽만 울렸을 것이다. 이번 참사에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그 유족들에게 중심으로 위로를 보낸다. (2003.2.22.)

비

지금 4월25일 오전인데, 봄비가 무척 많이 내립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시에도 많이 나오고, 팝송이나 대중가요에도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시조나 단가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봄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적 삶에 친숙한 현상이겠지요. 이 봄비에 대한 느낌은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감미로운 느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의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통의 맑은 날과는 색다른 감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함박눈이 내리는 날도 특이하고, 눈이 시릴 만큼 푸른 하늘이 보이는 날도 새롭고, 낮은 먹구름이 뒤덮힌 날도 자극적이긴 하지만, 봄날 내리는 비는 유난히 낭만적인 감정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훨씬 친근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날, 좋은 사람과 같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물론 그 카페의 창가에 앉으면 봄비가 내리는 바깥 풍경이 영화의 자막처럼 눈 안에 들어와야 하지만, 향과 맛이 좋은 커피를 마시며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싶어하겠지요. 그렇게들 해보시지요. 우리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은 추억으로 자리가 잡힐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오늘의 봄비를 바라봅니다. 좀 따분한 생각 같긴 한데, 이 지구에 언제부터 비가 내렸을까요? 지질학이나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별로 깊지 않아서 이런 질문에 관해서 설명해보

려면 한참이나 책을 뒤적여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것은 내버려 두렵니다. 전문가가 아닌 주제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유용하기도 하고, 훨씬 옳을 때도 많습니다. 46억 년 전에 태양의 자식으로 이 우주 가운데 출현한 지구에 산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인해서 물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 수증기 형태로 공중의 올라갔다가 대기의 불안정으로 다시 지표면으로 쏟아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태양과 똑같이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최소한 표면만이라도 지금과 같은 고체형태를 취해야 하고, 그 온도가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와야 하고, 물 분자를 형성할 만큼의 수소와 산소가 생성되려면 우리의 상식으로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긴 세월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행성에 물이 생성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위성의 탐사 보도에서 알려지듯이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도 지난날 물이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오직 지구에만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물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낮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주 가운데서 지구처럼 물이 풍부한 별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이 지구에만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늘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눈에는 물이라는 이 물질이 참으로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지구의 보물입니다. 일단 물이 있어서 지구의 생명현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70% 정도가 물이라고 하듯이 모든 생

명체의 기본은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만 탄소동화 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에도 역시 물이 신진대사의 기초로 작용합니다. 결국 온 세상의 생명은 곧 물의 현상입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이야기 같은데, 지구의 생명이 바다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군요. DNA가 물에서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태아가 자라는 여성들의 자궁도 역시 물의 세계입니다. 최초의 생명이 바다에서 시작되었듯이 한 인간도 역시 물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세면대에서 손이나 몸을 씻을 때 내 손과 몸을 타고 내리는 물의 감촉을 깊이 느껴보려고 모든 감각을 그것에 집중시키곤 합니다. 물은 지구상의 다른 물질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바가지처럼 만들어 물을 받아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는 물이 우리의 손 안에 남아있습니다. 큰 손에는 많은 물이, 작은 손에는 작은 물이 자유롭게 담겨 있습니다. 모았던 손을 떼면 물은 금방 밑으로 쏟아집니다. 샤워할 때 머리로부터 발가락까지 흘러내리는 물의 느낌을 생각해보십시오. 계곡을 자유롭게 흘러내리듯이 샤워 꼭지에서 우리 머리에 떨어지는 물줄기는 우리의 온몸을 흡사 뱀처럼 자연스럽게 타고 내려갑니다. 그 어떤 물질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물만이 자신의 형체를 고집하지 않고 타자에 따라서 자신을 자유롭게 변형시키면서 흘러내립니다.

헬렌 켈러의 어릴 적 이야기라고 합니다.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헬렌 켈러는 어느 한계에서 절대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을 겹쳐놓

고 손가락의 놀림으로 영어의 알파벳을 익혀주고 그 알파벳을 조합함으로써 사물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인식시켜주려고 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따라서 말을 못 하던 헬렌 켈러가 언어와 사물을 일치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리반은 헬렌 켈러를 마당 한 가운데 있는 펌프 앞으로 데리고 가서 쏟아져 내리는 물 줄기에 헬렌 켈러의 손을 갖다 대고 “water!”라는 단어를 그의 손바닥에 써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헬렌 켈러는 사물과 이름이 일치된다는 그 현상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헬렌 켈러의 의식이 발전됨으로써 이런 깨달음이 올 수 있었겠지만, 물이라는 사물의 그 독특성 때문에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빨리 온 게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그냥 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름으로 변했다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쏟아지는, 아주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현상에 대한 물리화적인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할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건과 현상들은 어떤 필연으로서가 아니라 우연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접근방식은 현상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불과한 것이지 그 근원에 대한 해명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은 추상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생명의 본질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추상적인

곳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자연 과학적인 방식과 세계이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열어가는 생명 세계의 한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 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분석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물의 존재론적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접근방식은 이미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바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조차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봄비 내리는 풍경을 보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봄비를 맞으며 걷고 싶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비 맞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우산 없이 학교에 갔다고 중간에 비가 내려서 어쩔 수 없이 비를 맞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집에 들어온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일부러 친구들과 같이 비를 맞으며 물장난질을 했습니다. 자연과 일치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인간에게는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 언제까지 비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과격한 생태학자들이 염려하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비가 내릴는지, 또는 지구의 사막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일 년에 하루 이틀밖에 비 오는 날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우주적 대재앙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이 지구는 아주 오랫동안 비를 뿌리겠지요. 특히 오늘 같은 감미로운 봄비가 내리겠지요. 그래도 언젠가는 비가 없는 날이 지구에 도래합니다. 태양이 지금까지 먹은 만큼의 나이를 먹게 되면 적색거성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자식을 삼켜 버리겠지요. 아주 먼, 대충 50억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아주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지구에 깨끗하고 달콤한 봄비가 계속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못살게 굴지 않고 내 버려둔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지구는 생명 운동을 가열차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방식으로 이 일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봄비야, 내려라. (2004.6.30.)

자전거를 타며 ...

현풍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지금 하양에 살면서도 계속 자전거를 탄다.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거나 약간 거리가 먼 곳을 갈 때만 제외하면 사시사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왜 자전거를 타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미주알고주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일반적인 이유에서이다. 일단 하양처럼 작은 마을에서는 승용차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좋다. 그뿐만 아니라 별로 생태학적 영성이 깊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끌고 다닐 때 불안하게 다가오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어서도 좋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할 실정이지만 하양에서 자전거 타기는 여러 면에서 불편하다. 일단 차도와 인도가 좁아서 자전거가 다닐 공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제일 크다. 대충 차도와 인도를 곡예사처럼 자유자재 들락거려보지만, 재미는 있어도 별로 편한 상태는 아니다. 독일처럼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다르게 확보되어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 실정에 그건 분에 넘치니까 접어두기로 하고, 있는 도로 형편에서나마 자전거를 타는 데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겠다. 어른들이야 그렇다치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끌고 나갈 때는 마음이 불안하다. 막 내딸은 자주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이나 비디오 대여점을 들락거리는데, 그럴 때마다 잔소리처럼 차 조심하라고 일러둔다. 평일의 저녁 무렵이나 특히 장날에는 이 하양

음내에 사람과 차와 자전거가 서로 뒤엉켜 있을 때가 많으니 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흔하게 들었으니까 그만두기로 하자.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우체국에 다녀오는 길에 하양교 위에서 느꼈던 새로운 감동을 잠시 되새겨볼까 한다. 왼편으로는 환성산이 올려다보이고 오른편으로는 대구 영천 간 국도와 철도가 내려다보이는 그런 길목을 가로질서 하양천이 흐르고 있는데, 나는 그 위에 난 다리 위를 흥겹게 자전거로 천천히 그러나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채 달리고 있었다. 다리 가장자리로 난 인도에는 과일, 모자, 바지 등등을 파는 행상인들이 자리를 확보하고 사람들은 그사이를 용케도 피해서 지나다니고 있었으며, 승용차와 짐차들도 역시 자기들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늘 흔하게 보아오던 풍경이다. 그런 풍경의 한구석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나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두 바퀴만 갖고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는 내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다. 움직이는 바퀴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물리학적으로 무슨 용어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 다시 중심이 잡히는 이런 운전 요령을 터득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려가고 있는 내가 신기했다. 가끔 내 연행에 면박을 주는 막내딸이 이 글을 읽으면 별것도 아닌 걸 놓고 그렇게 ‘오버’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을 놓고 내가 오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것은 중심을 잡을 줄 안다는 뜻이다. 아무리 젊고 탄탄한 육체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

고 하더라도 뇌졸중에 걸렸다면 자전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꾀다. 자기 몸의 중심을 다스리는 신경의 작동이 원활해야만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누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중심 잡기는 시각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르긴 몰라도 눈을 가리고 자전거를 탄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중심이동의 반응이 느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중심 잡기는 뇌의 신경이나 시각의 도움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두 발의 감각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오랫동안 꼬부린 자세로 앉아서 발에 쥐가 났을 때 일어서기도 힘들듯이 두 발의 감각이 예민하게 작용해야만 인간의 중심 잡기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생체학 전문가들이 볼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것은 모두 접어두고 인간이 두 발로 중심을 잡고 앞을 직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동의해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 인간의 직립보행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다. 소위 "호모 에렉투스"(직립인)의 출현은 유인원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인간의 지구적, 더 나아가서 우주론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어떻게 네 발로 땅을 기어 다니다가 두 발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세세한 줄거리야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지질학적 변화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아프리카가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는 서쪽과 평야로 되어 있는 동쪽으로 구분되면서 동쪽으로 떨어져 나온, 이미 꼬리

가 없어질 정도로 진화된 유인원이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먹이를 쉽게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앞의 두 발을 땅에서 떼어내고 일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이 때가 2백만 년 전쯤이다. 어쨌든지 인류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 호모 에렉투스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런 직립보행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탁월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그들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두 발로 직립한다는 것은 걸으면서도 두 손으로 무언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직립의 삶은 몸의 구조상 뇌의 무게를 훨씬 편리하게 감당할 수 있게 했다. 결국 다른 동물보다 큰 뇌를 소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직립은 성대를 발달시켰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훨씬 다양한 소리를 구사함으로써 결국 언어의 발달을 가져왔다. 손, 사유, 언어라는 인간적 특징의 단초가 바로 직립보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 몸의 중심 잡기 운동이 지구 역사를 바꾸어놓은 혁명적 사건이라는 점도 인정할 것이다.

아기를 낳고 키워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대충 생후 열 달 정도가 되면 조금씩 서기 시작한다. 의자나 사람을 붙들고 서다가 차츰 그런 의지대가 없어도 2, 3초 정도 혼자 서게 된다. 그때의 중심 잡기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단지 잠깐 두 발을 뻗치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막대기를 세워놓아도 그런 정도는 서 있다. 그래도 그게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경험인가? 아이들은 아빠의 손위에서 잠시 서 있다가 주저앉으면서도 까르르 웃는다. 그런 학습이 반복되면서 다리 근육에 힘도 붙고 자기 아빠에 대한 신뢰심도 증가하면서 이제

는 겁 없이 아빠의 손위에서 계속 힘을 주고 있게 된다. 그러다가 첫돌을 전후해서 혼자 걷게 된다. 이제부터 이 아이에게 세상은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한다. 기어 다니다가 걷는 아이의 눈에 이 세상의 사물의 실체가 바르게 들어오게 된다.

사지를 가진 동물 중에서 인간 이외에도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유가 몇몇 있긴 하다. 예컨대 침팬지를 오랫동안 훈련시키면 자전거도 타고 인형을 업고 걸어 다니다가 걷는 아이의 눈에 이 세상의 사물의 실체가 바르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침팬지에게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직립을 알고 있는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침팬지에게 쏟아놓은 결과에 불과하다. 침팬지 스스로 직립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작용한 게 아니라 인간의 인식과 의지가 작용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첫돌을 맞는 아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직립을 향해서 몸부림친다. 흡사 2백만 년 전 유인원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듯이 말이다. 고고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언급해야만 할 이런 문제를 내가 절대 언급한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줄이는 게 좋겠다.

어쨌든지 인간의 중심 잡기가 엄청난 사건인데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좀 ‘오버’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그 중심 잡기의 절묘한 감각을 지난 2백만 년 전 우리의 유인원이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터득하게 된 직립보행의 경험과 연결해서 자랑스럽게, 황홀하게 여길 것이다. 자전거 타기의 멋진 그림

한편으로 소개하겠다. ‘시티 오브 엔젤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가? 여의사 메기로 분한 맥 라이언이 숲속 언덕 길에서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놓은 채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환희에 찬 표정으로 달려 내려오는 그 멋진 모습도 역시 내 자전거 타기의 한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3년 5월30일)

협심증

건강검진

지난 6월 초 하양에 있는 병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다. 집사람이 가입해있는 보험공단에서 마흔 살 넘은 가족에게도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게 해주는 덕분에 지금까지 네다섯 번 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5, 6년 전부터 심전도 검사에서 약간 이상 증상이 나왔다. 그래프의 높낮이가 규칙적이지 않은 것 같았다. 몇 마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해주기는 했지만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없었고, 단지 심장을 조심하는 게 좋다는 의미로만 가볍게 받아들였었다. 이번에는 검진 결과 통보서를 좀더 자세하게 읽어보았다. 다른 부분은 정상으로 나왔는데 심전도 검사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질환" 의심으로 나왔다. 검진이 있었던 날 담당 의사는 내게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권고하였다.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심장의 작동을 검사하는 기계가 하양에는 없다면서, 소견서와 함께 대구의 아무개 종합병원을 소개해주었다. 귀찮지만 의사의 말대로 정밀검사를 받아볼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대구에 나갈 일이 생기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껏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아마 앞으로도 나의 게으른 습관을 미루어 짐작건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된다.

자가진단

우선 의사들의 소견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자가진단이 훨씬 바람직한 게 아닐까 하는 나의 건방진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 물론 여기 하양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는 진단이라고 한다면 굳이 피할 생각은 없지만 상당히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더구나 검진이라는 것이 미리 큰 병을 막아보자는 예방적 차원이 강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별로 개연성이 없는 약간의 증상만으로도 정밀진단을 받는 쪽으로 소견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싶지 않다. 이게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의 한계일지 모르며, 역으로 과학이 안고 있는 한계를 바로 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요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늘어난 탓인지는 몰라도 건강진단이 지나치게 과용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암이나 고혈압을 미리 진단하고 이에 맞는 약을 쓰거나 스스로 조심함으로써 건강의 결정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는 하지만, 인간이 건강진단을 통해서 이런 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힘든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의료기술이 인간을 병으로부터 지켜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 문제를 무조건 의학 기술에 매달려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어쩌면 의학기술은 인간의 병을 고친 것만큼 인간으로 하여금 병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인간으로 하여금 점점 더 병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아예 병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 병을 안고 사는 게 그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웬만한 병들은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연치료가 가능

하며, 그렇지 못한 병이라고 한다면 의학기술로도 역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 약간 시간을 연장하는 것 뿐이지 근본적 해결은 아니라는 말이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의학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식사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노동에 혹사당하지 말고, 마음을 밝게 갖는 것이 지나치게 정밀한 검진을 받으며 의학기술에 의존하며 사는 것보다 우선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좋은 점수를 받을 만큼 나 자신의 건강을 지켜온 셈이다. 테니스를 꾸준히 했고, 밥도 잘 먹고, 마음도 편안하게 갖는 편이다. 몸과 마음의 긴장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까지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거나 불쾌한 상태에 빠진 적이 거의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은 적도 없다. 약간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럴 때는 잠시 낮잠을 자고 나면 다시 상쾌해진다. 이번에 내 검진을 맡은 의사는 심전도 결과가 그래프로 그려진 종이를 보더니 나에게 물었다. "테니스를 치고 난 뒤에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과 식은땀이 나면서 호흡이 곤란했던 적이 없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었다. 약간의 저림 현상 같은 것은 느꼈지만 그렇다고 통증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었다. 의사는 의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협심증 의심 운운했을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의 자각증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 이런 질문은 사실 말이 안 된다. 의사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나는 그야말로 상식의 틀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아야 한다. 공연히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의 주관성에 빠져 있다가 병을 키우는 일

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전문가는 전문가 나름대로의 한계를 안고 있다. 자기의 전문 지식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전문가인 우리 목사들이 자신의 전문적 지식 때문에 근본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오묘한 방식으로 육체와 정신이 결합되어 있는 인간의 몸을 의학기술에만 완전히 맡겨두고 싶지 않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오십 년의 세월

내가 반드시 정밀검사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십 년을 넘게 살아온 내 삶의 연륜 때문이다. 살 만큼 살았다는 만족감이 그것이다. 사실 이만큼 산 것도 큰 행운에 속한다. 마흔이나 서른 살도 안 된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쓸만한 사람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억울한 간첩 누명을 쓰고 죽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고,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에서 테러와 반테러로 뜻하지 않은 죽음이 일상사가 되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오십이 넘도록 평안하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세월만 먹고 살아왔다. 이만큼 살았으면 충분히 산 것이고, 더 산다고 하더라도 별로 새로울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알 만큼 알았고, 느낄 만큼 느꼈고, 슬플 만큼 슬펐고, 즐거울 만큼 즐거웠다. 이후의 삶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닐는지. 그렇다고 내가 심한 허무감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니다. 아내와 두 딸과 재미있게 살고 있으며, 테니스 동우회에서 테니스 실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업적을 남겼으며 앞으로
도 쓰고 싶은 책이나 번역하고 싶은 책도 많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를 새로운 공동체로 성장시키고 싶은 생각도
크다. 좋은 책도 더 읽고 싶고, 음악도 더 듣고 싶고, 세
상 구경도 더 하고 싶다. 사람도 많이 알고 싶다. 그만
큼 이 세상에는 재미있게 살아갈 만한 일들이 많다. 그
러나 지금 당장 이런 모든 즐거움과 일거리를 그만둔다
고 해도 그렇게 서럽지는 않다. 이만큼 살아도 충분할
정도로 오래 살았다는 게 나의 솔직한 생각이다.

돌연사

좀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
어야 하는데 가능하면 간단히 죽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
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잘하는 일이 아닐까 모르겠다. 80
년, 90년 장수하면서 늘 병원 신세를 지고, 가족을 힘들
게 하는 것보다는 5, 60년 살더라도 튼튼하게 살다가 돌
연사하는 게 낫다는 말이다. 협심증이야말로 돌연사의
가장 지름길이다. 어느 날 자다가 심장이 멈춘다면 아무
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상의 죽음이다.
내 기억으로는 <닥터 지바고>의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그렇게 죽었다. 아쉽지만 깨끗한 죽음이다.

어쨌든 이렇게 뭘 좀 아는 척하거나, 자기 논리에 폭
빠져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병
하면, 정밀진단을 받지 않은 일을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지
미리 걱정을 싸매고 살 일은 아니다. (2003.6.30)

잠자리

잠자리 떼의 출현

내 서재가 들어앉은 대구성서 아카데미가 대구와 영천을 잇는 대로변에 붙어있긴 하지만 건물 뒤편으로는 앞으로 공원이 들어설 자리에 묘목밭이 있어서 그쪽으로 눈을 돌릴 때마다 편만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 며칠 전 서재에 앉아서 문득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다가 다시 한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장마 중에 잠시 맑은 날을 틈타 물려든 잠자리 떼였다. 푸른 하늘에 드문 드문 뭉게구름이 자리를 잡은 게 보였고, 멀리는 하양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환성산의 자태가 자못 매혹적으로 보이는 그 시간에 물경 3, 4천 평쯤 되어 보이는 묘목밭 한쪽 편에서 갑자기 잠자리 떼의 군무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런 장면은 사실 어릴 때 많이 보았다. 여름 방학 내도록 개울이나 웅덩이에서 고기를 잡거나 수영을 하며 지내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수십, 수백의 잠자리가 어울려 만들어내는 풍경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말 잠자리는 아주 컸다. 암놈 말 잠자리를 한 마리 잡으면 그걸 미끼로 해서 수말 잠자리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암놈을 실로 묶어 돌리면 수놈이 와서 붙기 때문에 간단히 잡을 수 있었다. 그때 그 말 잠자리를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메뚜기는 그 자리에서 구워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면 저녁 반찬거리라도 되지만, 잠자리는 먹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잡았다. 아마 그

게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였던 것 같다.

기왕에 잠자리 놀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잔인한 놀이 한 가지를 고백해야겠다. 우리는 잠자리를 잡아서 꿈무늬에 적당한 크기의 나뭇가지나 지푸라기 같은 것을 쭈셔 넣고 날려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 자기 몸에 난 상처도 상처지만 그 무게로 인해서 그 잠자리는 허우적거리면 겨우 날아갔다. 그 어떤 곤충보다 탁월한 비상 기술을 갖고 있던 잠자리의 비틀대는 비상을 보고 우리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풍덩이의 날개를 어긋나게 비틀어놓으면 그놈들이 도망하려고 아무리 날갯짓을 심하게 해도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정말 심심해서 그런 잔인한 행동까지 놀이로 생각했다. 집안에 들어가 봐야 덩기만 하고 공부하라는 어머니 잔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몰래 빠져나와 친구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런 잔인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지는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놀이보다 훨씬 창조적인 일에 재미를 붙여야만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이다.

고추잠자리의 무도회

좀 나이가 들어서도 잠자리의 군무는 내 기억에 깊은 인상을 심어놓곤 했다. 지금도 이런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된다. 아마 81년 여름 8사단 모 연대에서 군목으로 일할 때인 것 같다. 내가 근무하던 연대 교회는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길명리 언덕배기에 자리잡고 있던 전형적인 시골교회당으로서, 흰색 벽에 붉은 지붕의 건물이었다. 연대의 통신보안 명칭인 ‘불멸’을 따서 불멸교회라고 불

린 이 교회에서 81년 8월부터 82년 7월 말까지 근무했다. 81년 초가을 어느 날 나는 교회당 뒤편 언덕에 앉아서 책을 보기도 하고, 간혹 그 아래쪽 꾸불꾸불한 비포장도로를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오가는 여객버스를 건너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고추잠자리 떼가 확 내 눈에 들어왔다.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몰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순간에 눈에 띄었다. 사실 우리는 자기의 관심사에만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태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쨌든지 오랜만에 보는 그런 장면을 놓치지 않고 옆에서 바라보다가 아예 잔디 위에 누워서 보기로 했다. 밑에서 올려다보는 광경은 또 달랐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빨간 고추잠자리들의 비상은 너무나 찬란한 생명의 무도회였다.

그런 어릴 때, 또는 젊었을 때의 기억이 있는 터라 이번에도 묘목밭 위에서 군무를 펼치고 있는 잠자리 떼를 눈여겨보았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놈들의 날갯짓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곤충학자들에게 물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날갯짓 없이 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내 눈에는 그놈들이 날개를 짝 편 채로 그나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 같이 보였다. 아마 그놈들의 날개가 너무 투명한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날갯짓이 너무나 빠른 탓일 수도 있으리라.

비상의 자유

아, 잠자리의 날개! 모기나 파리의 날개도 신기한 하겠지만 잠자리의 날개를 따라가진 못한다. 어릴 때 만

저보았던 잠자리의 날개는 무슨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신비로웠다. 나비의 날개는 너무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별로 상쾌한 기분을 주지는 못했으며, 또한 메뚜기 날개는 너무 거칠었다. 반면에 잠자리 날개의 질감은 나비의 부드러움과 메뚜기의 거칠을 적당하게 배합시킨 느낌을 주었다. 그런 부드러움과 거침이 조화된 날개로 인해서 잠자리는 곤충으로서 가장 뛰어난 비상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아마 나비와 메뚜기의 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잠자리의 비상이 얼마나 고고하고 완벽한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비의 나는 모습은 흡사 왈츠를 추듯이 우아하기는 하지만 보는 이의 숨을 가쁘게 만든다. 메뚜기는 나는 게 아니라 뛴다고 보는 게 나을 것이다. 물론 그 서툰 날갯짓을 통해서 뛰는 거리를 대폭 늘릴 수는 있지만, 날갯짓이 퇴화된 닭처럼 자기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의 부력이 없다. 그러나 지구의 중력을 거의 극복한 듯한 잠자리의 비상은 그들과 전혀 품격을 달리한다. 내 눈에 비친 잠자리의 비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잠자리는 공간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떠다니다고 보는 게 옳다. 흡사 어항 속의 물고기가 인간이 하듯이 역지로 노력해서 해염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과 하나가 되어 물속에 떠 있는 것과 같다. 잠자리의 비상을 보면 공기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는 것 같다.

둘째, 잠자리의 순간 이동은 그 어떤 곤충이 따라올 수 없다. 빠른 종류의 잠자리는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까닭인지는 몰라도 잠자리의 비상은 거의 직선 운동에 가깝게 보인다. 아마 어렸을 때 담장이

나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잠자리를 손으로 잡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잠자리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곤충인지 실감했을 것이다. 물론 머리 전체가 거의 겹눈으로 둘러싸여서 전후좌우 어떤 방향이든지 대상을 완벽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시각 탐색기도 하지만 빠른 공간이동 능력이 그것을 받쳐내기 때문에 자기 보호가 가능하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잠자리의 비상을 완전한 자유라고 부르고 싶다. 모든 날것은 아무리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길이 정해져 있다. 예컨대 갈매기나 독수리나 제비의 비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거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잠자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 덩치보다 워낙 빠른 데다가 다른 날것들에게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의 비행 노선을 예상할 수 없다. 아마 파리나 모기도 이런 점에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겠지만 일단 그 품위에서 잠자리보다는 한 수 아래다.

만약 우리가 잠자리의 자유로운 비상을 따라가고 싶다면 위에서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한 것처럼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지구의 중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자기 몸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대개 우리의 삶은 날개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평생 자기 덩치를 키우는 데만 신경을 쏟고 사는 사람은 결코 비상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을 정도의 날갯짓 기술이다.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조건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말이다. 잠
자리는 저절로 그것을 아는데, 나는 언제쯤 그것을 몸으
로 깨닫고 살는지! (2003.7.30)**

가을 햇빛, 벼

오늘은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 부시도록 빛난다. 이 눈부심은 온 천지가 눈에 덮인 겨울 어느 날의 화려함이 아니며, 그렇다고 복사꽃의 화사함이 가져다주는 어느 봄날의 황홀한 나른함도 아니고, 파도의 흥겨움과 백사장의 뜨거움이 가져다주는 여름 어느 날의 열정도 아니다. 이 가을의 눈부심은 순결미도 아니고 청순미도 아니며, 관능미도 아니다. 가을의 햇살만이 가진 이 눈부심은 그 모든 것을 합쳐놓은 아름다움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완숙미라는 게 말이 될까? 이 가을은 생명이 완성되는 절기이니까 그런 아름다움으로 불러도 좋을리라. 또는 나그네가 주막집에 들어가듯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이니까 한편으로는 분주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쉬움과 편안함이 더불어 있는 시간일 것이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상념이나 감상에 젖을 나이를 훨씬 넘긴 나에게 이 가을 햇살이 왜 이토록 눈부시게 다가오는 것일까?

어쩌면 심리적인 착각이 작용하는지 모르겠다. 실제로는 다른 계절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은 햇빛이지만 지난여름의 더위,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있다가 이 가을이 만들어내는 전혀 새로운 자연의 모습에 물씬 빠져드는 것 같다. 분명히 가을 햇살은 나무와 풀, 꽃의 색깔을 화려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시각이 번뜩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 이 가을은 우리

가 생명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같다. 흡사 카드 섹션이 일어나듯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리고 산꼭대기서부터 산 아래로 차례대로 옷을 갈아입는 그 자태라니! 우리의 무더졌던 감각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고 눈이 부실 수밖에!

이런 감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이 가을 햇살은 나를 눈 부시게 하고, 더 나아가 순간적으로나마 정신을 아득하게 만든다. 오늘 점심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면서 이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적당한 바람, 하양 천변에 피어있는 꽃, 환성산의 푸름,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하늘의 구름 등등,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그것 이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별로 없었다. 연구소 앞마당에 자전거를 세워놓다가 문득 바로 옆의 공터에 널려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태양 빛에 말리려고 널어놓은 벼였다. 요즘은 벼 건조도 대개는 기계로 처리하는 데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보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어떤 언어로도 마땅히 그려낼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가을, 햇빛, 벼가 내 감각과 의식 속에서 오버랩되는 순간이었다. 이런 게 일종의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저기 저렇게 널려 있는 벼는 원천적으로 태양 에너지의 결집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물의 탄소동화 작용은 빛과 탄소와 물이 물리적, 화학적 상호 작용을 통

해서 일어난다. 여기서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모든 요소가 각기 나름대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이 지구의 대기에 탄소량이 줄어들었다면 이런 탄소동화 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멈추게 될 것이다. 물론 물은 모든 생명의 가장 중심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설명이 필요 없다. 이 탄소와 물이라는 지구의 물질이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게 참으로 신기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해를 바라볼 때 단지 세상을 밝혀준다는 관점만 생각하지 실제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현상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햇빛의 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하면 이 지구의 생태계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모든 식물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멸종하게 될 것이며, 식물이 사라지면 그것을 먹거리로 삼는 동물들이 죽게 되고, 그 뒤로는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벼는 해 에너지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도 해 에너지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해도 좋다. 해 에너지가 우리의 몸을 살리고 있다. 탄소동화 작용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은 가능하지만 과연 해 에너지가 우리 인간의 몸에 담긴다는 그 긴 과정을 명확하게 해명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뿐이지 그래야만 할 당위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사실 생명현상 자체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 에너지와 인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문제는 아마 종말에 가서야 드러나지 않겠는가. 어쨌든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해의 자식들이 분명하다. 우리가 모두 해를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이 해를 일종의 신성으로 숭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거의 모든 종교는 이 해와 연결되어 있다. 이집트나 잉카문명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직접 해를 섬기는 종교도 많지만 간접적으로는 모든 종교는 해와 연관을 맺고 있다. 기독교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신약성서에는 예수를 빛이라는 메타포로 표현한다. 교회의 절기도 상당한 경우에 이 해와 연결된다. 우선 기독교가 거룩한 날로 생각하는 주일이 바로 로마에서 해의 날로 섬기는 날이며, 성탄절도 역시 해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한다고 믿었던 12월25일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사건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빛이라는 사실도 역시 이런 구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는 지구에서 거의 1억5천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지구를 비롯한 수성, 금성, 목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명왕성까지 떠돌이별 아홉 식구를 거느리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식구가 발견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아홉 별이다. 빛이 해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대략 8분 정도 걸린다. 그렇다면 명왕성까지는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대 여섯 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마 명왕성에서 해를 보면 주먹보다 더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빛이 가 닿기도 힘든 그 거리의 명왕성을 끌어당기고 있는 해의 중력은 도대체 얼마나 막강한 것일까?

해에서 분출되는 빛 에너지는 거의 무한에 가깝다. 주로 헬륨 가스가 연소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빛이 내는

에너지 중에서 지구가 받아내는 것은 거의 수치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미미하다. 예를 들어 10만 명이 들어가는 축구장 한복판에 고성능 난로를 설치했다고 하자. 관중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받는 열량은 전체 열량의 몇 퍼센트가 될까? 평면으로만 계산해도 십만 분의 일인데다가 공중과 지면으로 흩어지는 열량까지 계산하면 어느 정도일는지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지구가 해로부터 받아들이는 빛 에너지는 이런 관계보다 훨씬 적다. 1억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요즘 생태학자들의 염려가 많은데, 만약 앞으로 거의 무한에 가까운 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만 하면 에너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런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기술 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해버릴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라. 그렇게 적은 햇빛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지구에 이처럼 놀라운 생명현상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그 기적의 한순간을 나는 오늘 가을 햇살에 온몸을 드러낸 황금빛 벼에서 보았다. 『나락 한알 속의 우주』라는 이야기집을 펴낸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생각도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었을까? 모든 예술, 문학, 과학, 종교, 그리고 모든 인간학적 담론들은 바로 이런 세계를 사유의 토대로 삼는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계의 신묘불측(神妙不測) 앞에서 진정한 영성을 확보할 줄 알아야 한다. 로고스의 영성만이 아니라 몸의 영성이 바로 그것이다. 햇빛과 벼가 마지막 사랑을 불태우는 이 가을에 나는 사물 속에 깃든 에로티시즘을 다시 맛본다. 에로티시즘의 영성이라, 말이 될까? (2003.10.25.)

라스트 사무라이

Last Samurai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동양은 한편으로는 야만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로운 것이다. 야만스럽다는 것은 자기들의 문명이나 문화에 비해 동양의 그것은 뒤떨어진다는 것이며, 신비롭다는 것은 자신들의 문명과 문화로 담아내지 못하는 정신세계가 동양에 있다는 뜻이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동양을 주제로 하는 영화도 역시 거의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별로 영화를 즐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영화가 얼마나 생산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자신이 없다. 다만 월남전을 소재로 무수하게 나왔던 할리우드 영화 몇 편에서 그런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모르긴 몰라도 인도, 중국,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역시 이런 범주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거의 4, 5년 만에 가족에게 끌려서 오늘(2004년 1월 19일) 롯데 시네마 제6관에서 본 <라스트 사무라이>도 역시 이런 서양 사람들의 눈에 신비하게 보인 일본 무사도(武士道)에 대한 이야기였다. 물론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솔직하게는 좀더 돈벌이가 되게 하려고 사무라이의 세계를 미화시킨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간단히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톰 크루즈가 분(扮)한 주인공 네이든 알그렌은 남북 전

쟁과 인디언 정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 현역 대위였다. 그는 1870년대에 막부정치 시대를 끝내고 일본의 개화를 위해서 우선 철도를 깔고 서양식 군대를 조직하려는 일본 천황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건너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는 사무라이를 토벌해야 할 책임을 떠맡았다. 알그렌은 무고한 인디언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에 비해 거의 스무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매력을 느낀 아주 평범하고 세속적인 인물이었다. 사무라이 집단과 아직 싸울만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속 상관의 성급한 판단 때문에 선부른 전쟁을 벌였다가 크게 당하고, 알그렌은 죽음일보 앞에서 사무라이 대장인 카츠모토에 의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포로가 된다. 켄 와타나베가 분한 카츠모토는 바로 이 영화에서 마지막 사무라이로 대표되는 인물로서 사무라이 세계에서 주군(主君, Lord)이라고 불린다. 포로가 된 알그렌은 카츠모토의 배려로 별 어려움 없이 겨울 한철을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는 도시와 격리된 채 자기들끼리 독특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맛본다. 카츠모토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무라이들이 어떤 생사(生死)관을 가졌는지, 그들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접하게 된다. 사무라이 마을에 축제가 벌어진 날, 일단의 자객들이 들이닥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알그렌이 카츠모토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 이후에 카츠모토와 알그렌 사이에 깊은 신뢰가 쌓인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황제의 호출을 받아 동경(?)에 간 카츠모토는 개화파 대신의 계략에 빠져 구금된다. 카츠모토와 함께

동경으로 돌아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던 알그렌이 이 소식을 접하고 몇 사람들과 힘을 합해 카츠모토를 구출한 후 다시 산속으로 들어간다. 천황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힘을 손아귀에 쥔 개화파 대신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제국 군대는 미국에서 들어온 곡사포와 기관총 같은 어마어마한 화력을 앞에서 사무라이 마을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모든 사무라이는 죽는다. 그 위대했던 카츠모토도 장렬하게 최후를 맞는다. 토벌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개화파 대신은 황제를 설득해서 미국과 정식으로 조약을 맺으려고 한다. 물론 이 조약이 체결되면 이 대신의 개인 사업은 훨씬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 그 순간 알그렌이 나타나 황제에게 카츠모토의 칼을 건네면서 그의 충성을 다시 확인시킨다. 개화파 대신에게 발목이 잡혀 고분고분했던 나이 어린 천황은 이 칼을 보고 다시 일본 정신을 회복한 다음, 미국과의 조약을 거부한다. 황제는 일본이 하나가 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라이 족을 멀리했지만 원래 수백 년 동안 황실을 지켜왔던 사무라이의 충성심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한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발전도 좋지만 사무라이로 대표되는 일본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는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뛰어난 작품은 아니다. 우선 독창성에서 밀린다. 위의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야기의 흐름이 이미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늑대와의 춤>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늑대와의 춤>에서 주인공은 인디언들에게서 훨씬 강한 인간미와 평화 지향성을 발견

하고 자기의 뿌리인 백인들과 싸우는데, 그런 흐름을 <라스트 사무라이>가 베낀 것 같다. 이런 큰 흐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도 역시 베낀 흔적은 적지 않다. 아마 마지막 인디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제법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영화에서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논리가 그렇게 명백하지 않은 것 같다. 아무리 한 개인의 죽음과 삶의 문제를 훨씬 거대한 운명의 힘에 맡기는 사무라이들이지만 매제를 죽인 미국 사람을 그대로 용납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를 죽여야 한다는 참모들의 주장 앞에서 적을 알아야 적들과 싸울 수 있다는 카츠모토의 논리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이 영화에서 상당히 양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쟁 장면에서 리얼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 영화에서 전쟁은 두 번 벌어지는데, 두 번째 장면이 너무 상투적인 방식이었다. 이런 전쟁 영화가 늘 그렇듯이 큰 전쟁터에 양 진영이 집결해 있고, 서로 밀려들면서 전투가 벌어진다. 그리고 부분 전투를 세밀하게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런 정도의 장면은 영화 후진국에서도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안개 전투로 일컬어지는 첫 장면은 전쟁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긴장감의 밀도가 강했다.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트집 잡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영화가 다른 장면에 비해서 전쟁 장면에서 그 완성도가 떨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별 볼 일 없는, 그렇고 그런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더구나 그 영화관 관객 중에서 제일 나이

가 많다는 어색함을 무릅쓰고 본 영화가 걸작이 아니라서, 사실 그런 야무진 꿈을 갖고 하양에서 대구까지 먼 길을 간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이 없지 않았지만 이 영화에서 인상 깊게 남아있는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 영화 뒷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그것은 두 대목이다.

하나는 다음과 같다. 알그렌은 포로로 잡혀 겨울 한 철 사무라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칼 쓰기를 배운다. 전쟁 영웅으로서 싸움이라면 일가견이 있던 그였지만 사무라이 검객들과의 칼 쓰기에는 맥을 추지 못했다. 카츠모토의 아들이 이렇게 그에게 충고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마음을 비우라.” 칼 쓰기를 할 때는 오직 상대방과 칼만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한다. 여기서 내 설명이 더는 필요 없다. 무엇이든지 도(道)에 이르려면 한 가지만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앙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인식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고, 더구나 그것을 체화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혼란스러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부(궁후)라는 것은 자기를 비워내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자기를 비워내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적 어른들은 묵언 수행을 한다거나 좋은 글을 소리 내 읽었다.

다른 한 대목은 알그렌과 카츠모토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에 들어 있다. 이 두 사람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

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공감되는 경험이 있었다. 죽음과 두려움이 그것이다. 그런데 알그렌은 일본에 오기 전에 자기 삶을 포기한 것처럼 살았고 일본에 와서도 잠을 자다가 헛소리를 하는 일이 많을 정도로 불안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훨씬 죽음과 죽음에 가까이 있던 카츠모토는 여전히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카츠모토의 말이다. “벚꽃처럼 모두가 죽어. 그러나 모든 건 존재의미가 있지. 그걸 아는 게 무사도야.” 사무라이는 죽이는 자나 죽는 자나 결국 잠깐 피다가 떨어지는 꽃잎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서로 적으로 만나서 죽고 죽이기는 하지만 모든 생명이 존재론적으로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카츠모토가 자기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시를 쓰다가 끝내지 못한 마지막 연이 의미심장한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영화를 보다가 잠시 다른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 다만 벚꽃 한 송이도 완벽한 하나의 생명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만 할뿐이다. 어쨌든지 알그렌이나 카츠모토나 똑같이 전문적으로 사람 죽이는 일을 그것에 대한 태도와 결과는 달랐다. 한쪽은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 다른 한쪽은 존재론적인 운명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들의 삶이 외면적으로는 비슷한 행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크게 달랐다. 한쪽은 그 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미움과 증오였다면, 다른 한쪽은 존재와 사랑이었다. (도대체 목숨을 건 싸움에서 사랑이 말이 되는가, 하고 따질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능한 세계가 바로 사무라이의 도, 즉 무사도이다.). 이런 존재와 사랑이 그

뿌리를 잡고 있던 사무라이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밀려오는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섬김'에서, 즉 시(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알그렌이 한겨울을 함께 지내면서 경험한 사무라이 마을의 그 역동성은 곧 그들이 시를 삶의 구성 요소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영화는 이런 내용을 잡아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의 대형 화면을 가득 채운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때로는 그것이 뉴질랜드에서 촬영되었다고 하지만, 6천5백 원의 가치는 충분하리라고 본다. 개화기의 일본 풍경을 맛보는 것도 이 영화 감상의 한 재미이다. 특히 카츠모토의 여동생으로서 자기 남편을 죽인,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포로로 잡혀 온 알그렌을 한편으로는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무라이 정신인 시(侍)의 마음으로 극진히 보살피다가 조금씩 사랑의 향기에 휩싸이게 된 고유키(타카 역)라는 여배우의 연기도 빼어났다.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표정, 그리고 절제된 행동만으로 깊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연기력의 내공이 아닐까? (2003.)

고비용의 삶 벗어나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이라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경우에 따라서 부자로 태어나거나 가난하게 태어나는 일이 있고, 머리가 명석하거나 약간 모자라게 태어나기는 하지만 모두가 소중하기는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도 찾아볼 수 없이 똑같다. 이왕에 태어난 생명이라면 가능한 대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마땅할 것이다. 물론 내가 이렇게 뻔한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애쓴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한 그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닐지 모른다는 점을 좀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한 노력이 그 조건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결국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손해인 셈이다. 삶이 수학 계산처럼 손익의 구도에서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약간만 생각을 집중하면 대략적인 구도는 우리 손에 들어온다. 여기서 잠시 우리 삶이 손해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 고비용 구조가 무엇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 전체 국민이 가장 심하게 비용을 들이는 부분은 자녀들의 교육이다. 매년 입시 철만 되며 사교육비의 폐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참으로 많다.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놓았는데,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티브이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 보충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받지 않더라도 대학입시 준비에 아무런 문제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이런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지만 이런 제안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단지 사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학교와 교육방송 앞으로 끌어낼 수 있을 뿐이지 (그것도 사실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사교육비 자체가 말 그대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대입 제도의 왜곡현상이 정상적인 상태로 교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이 우리의 교육 구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의 교육 구조가 왜 고비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만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자.

일단 국가 전체적인 크기에서 볼 때 대학생들이 양적으로 너무 많다. 국가 경영에 별로 필요 없는 부분에 돈이 과용됨으로써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80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20만 명 정도는 대학을 가고, 30만 명은 순전히 기술을 배우는 전문학교로 진학하고, 나머지 30만 명은 직접 직업을 갖는 게 국가 경영의 합리적 구조라고 하자. 그런데 이 사회가 50만 명에게 대학교육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고비용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처럼 학력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대학교육의과투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다. 따라서 교육의 고비용 구조를 뜯어고치려면 결국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길밖에 없다. 아마 교육 당국자나 기업과 노조 관계자들도 이런 상황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들을 관리하거나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의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간부급 직원들이 회사에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는 참으로 요원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낸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고비용 구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이렇게 교육비에 부담을 갖고 사는 한 우리는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기회를 훨씬 많이 놓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또 하나의 부분은 자식 결혼이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도 자식 문제였는데, 이 부분도 역시 자식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의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다른 기회에 이 결혼의 고비용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자. 일단 결혼식 자체에 소모적인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 친소를 불문하고 안면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결혼식장의 하객으로 불러모으는 것 자체가 우선 고비용이다. 이미 당사들이 그런 하객으로 불러 다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능력이 닿는 한 많은 하객들을 결혼식장으로 끌어들인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전날 미리 경치 좋은 곳에서

비디오와 사진 촬영하는 일도 역시 고비용이다. 결혼식을 신랑과 신부만이 아니라 오히려 양쪽 집안의 일로 여기든 옛날이라면 모든 힘을 결혼식에 쏟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아주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혼식만은 농경사회의 전통에 충실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분열 현상이 아닐까 모르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어떤 점에서 거룩한 사건이라 할 결혼마저 상품논리로 간주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고착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삶의 고비용이 어디 이런 일 만인가? 여성들의 외모에 투자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야 남이 이러쿵저러쿵할 바가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있기로 해도 아름답게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 현실은 참으로 서글프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의 여성들만큼 화장을 많이 하는 여성들이 없다고 한다. 한국에 오래 살았던 어떤 일본 여자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자기가 처음 한국에 와서 놀란 일 중의 하나가 가정주부들의 진한 화장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 그런 진한 화장은 술집 여성들에게서나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 남성들은 정력보강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쓴다. 진한 화장의 여성이나 비싼 정력제를 먹은 남성들이 그런 것으로 행복할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신앙생활의 고비용이다. 이 세상이야 늘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렇다 치고,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고비용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헌금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나 예배가 너무 자주 있다는 점들은 여러 사람이 거론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다. 수백만 원의 강사료를 지불하면서 텔런트나 유명 강사를 데려다가 교회 안에서 흡사 개그 콘서트 같은 행사를 벌일 필요가 있을까? 일년에 4, 5천만 원을 들이면서까지 해외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해외 선교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들어서서 각 교단마다, 각 대형 교회마다 고비용이 들더라도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행사가 유행병처럼 번진 그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치맛바람의 주인 공들처럼 공연한 일에 자기 삶을 소진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고비용의 삶 벗어나기’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완전한 답을 나도 모른다.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각자가 삶(life, 生命)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 소리?’라고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거야 영적인 면에서만 그렇지!’라고 이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절대 할 말은 없다. 독백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

다.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고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실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비용을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가 훨씬 깊고 넓게 확장될 것이다. (2003.)

행복한 순간

어제(10월5일) 서해안에 있는 대천까지 하루일정으로 다녀왔다. 8년 된 '아반테'를 몰고 동대구 틀게이트로 들어가서 대전의 유성 틀게이트로 빠져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고속도로 운전은 속도감 말고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정말 재미없는 길이다. 유성으로 빠져나오고부터는 국도로 서해안까지 가야 한다. 공주, 청양, 보령, 그 다음이 대천이다.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이 있는 그곳이다.

드라이브는 역시 국도였다. 특히 공주에서 청양까지 4,50km 정도의 국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길은 4차선과 2차선이 번갈아가며 연결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옛날 길 그대로의 2차선 쪽이 한결 좋았다. 하양보다 윗쪽이라서 그런지 이미 코스모스가 제철에 접어들었다. 길 양쪽으로 흡사 사열을 준비하듯 길게 늘어선 코스모스의 군락이라니. 빨강, 분홍, 흰색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코스모의 청초한 모습을 감상하면 운전하는 기분을 아는 사람을 알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색의 세계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일까? 노출이라기보다는 그들은 그 색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색은 코스모스가 우주와 교감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그 색의 세계야말로 그들이 우주로부터 얻은 것이다.

색이 오직 지구에서만 가능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아

는 분은 알리라. 그리고 그런 사실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리라. 특히 태양과 지구가 빛을 통해서 사랑을 나눈 그 결과 중의 하나가 색이다. 공주에서 청양까지 코스모스만 만발한 게 아니다. 꽃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주황색 일색의 꽃무더기가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 코스모스의 꽃잎과 비슷하게 생긴 꽃잎을 가진 꽃인데, 꽃잎의 숫자가 더 많은 듯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런 꽃의 자태와 색의 아름다움을 내 머리 속 깊이 꼭꼭 눌러 담아 두었다.

코스모스 너머 논에는 이미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벼가 보기 좋게 자리를 깔고 있었다. 우리 한국사람의 일 년치 먹거리, 알알이 영근 생명의 실체들, 그런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배가 불렀다. 약간 멀리는 그리 높거나 험하지 않은 산들이 병풍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고 있었다. 공중에서는 가을 햇살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무더기로 쏟아지는 중이었다.

그 시간, 그 공간 안에서 내가 그런 생명현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행복감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다가 내 승용차 안에는 절규하는 듯한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랴. 킬리만자로의 ... 등등의 노래가. 유성에서 대천까지 두 시간 가까이 가는 동안 두 장의 씨디를 들었는데, 한 장이 바로 조용필의 것이고, 다른 한 장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한복을 입고 '쫄레꽃' 같은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 뒤늦게 기억이 난다) 장사익의 '하늘 가는 길'이라는 타이틀의 씨디였다. 우리 가족이 유럽 여행을 다닐 때 딸들과 우리 부부 사이에 무

슨 노래를 들을지 신경이가 많았다.

그 녀석들은 조성모의 노래를 듣자고 하고, 우리는 조용필과 피티김의 노래를 듣자고 다투었다. 그럴듯한 여행을 하려면 아이들은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게 좋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노래도 포함된다. 조용필의 노래가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기서 굳이 길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 그냥 한 마디만 한다면 조용필은 자기의 분명한 음악세계를 갖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이다. 누구나 다 자기의 노래 세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거 하고 그 노래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하고는 좀 구분해야 한다.

나는 조용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약간 유치한 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감을 느끼곤 한다. 조영남에게는 그런 게 별로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영남의 가창력이나 끼는 조용필 못지않은데 말이다.

장사익의 '하늘 가는 길'을 들어보셨는지? 그 노랫말은 바로 찬송가 가사와 같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반주로 인해서 장사익의 노래는 세속 노래의 경지 끝에 도달했다. 괜히 말이 다른 곳으로 흘렀다. 코스모스, 벼, 산, 가을햇살, 조용필과 장사익의 노래 ... 이런 것들 속에 흠뻑 빠져 있었던 어제 그 시간들은 나에게 행복했던 순간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영적으로 풍요로운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면 있는 그대로의 이 세계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배부른 소리일까? 이게 추상이고 관념뿐
일까? 이런 기쁨과 자유가 생명의 가장 현실적인 내용들
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초월의 경험들이 아닐
까? 이런 자유와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학이다. 잘 나가다가 또 신학으로 빠져버리는
군. 이만 접자.

재미나게 놀자!

내 나이 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린시절은 그야말로 자유로움의 절정이었다. 물론 내 초등학교 시절에는 중학교 입시가 있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집안의 아이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긴 했을 테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쓸만한 여유가 없는 우리 집 같은 아이들은 노는 데만 정신을 팔았다. 학교 선생님들이 하한선으로 정해놓은 점수보다 못할 때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우리들은 시험 때마다 바짝 긴장하곤 했지만 나는 다행히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덕분에 그럭저럭 구종을 듣지 않을 정도는 되었다. 어쨌든지 우리는 공부보다는 노는 일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때 우리들은 무얼 하며 놀았을까? 그걸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놀이감이었다. 시절을 좇아 밤, 산딸기를 따먹고, 칩을 캐러 산을 쏘다녔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서울 광나루 건너 마을 천호동이였기 때문에 여름이면 그 광나무 밑 한강으로 수영하러 다니거나 조금 더 상류인 암사동으로 올라가서 한강 물 속의 조개를 따는 일도 잦았다. 그때 우리의 놀이는 유행을 탔다. 구슬, 딱지, 연, 팽이, 썰매 등등, 여러 놀이가 계절을 탔다. 이런 놀이 중에는 그냥 재미있는 것만이 아니라 제법 위험한 것도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놀이였다. 이 동네, 저 동네 아이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 가며 벌였던 그 전쟁놀이를 생

각하면 지금도 좀 아찔하게 느껴진다. 장대, 전기줄, 돌맹이 등등, 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싸웠다. 물론 다치는 아이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때 우리의 기분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군들 못지않았다. 이런 놀이에 빠져든 날은 집에서 어머니나 누나들이 “용섭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하는 소리가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

놀이에 빠진 아이들은 왜 밥 먹는 시간도 놓치는 걸까? 무언가 병적인 현상인가? 이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놀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놀이에 빠지기 때문이다. 놀이가 그들을 끌어가니까 아이들은 그 순간에 주체를 상실한다. 이렇게 주체가 초월당하는 경험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밥에 대해서도, 시험에 대해서도, 집안 걱정에도 대해서 모두 초월하고 오직 놀이의 강제력에 사로잡히는 게 곧 자유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놀 시간을 가능한대로 많이 줌으로써 궁극적인 ‘자유’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일 것이다.

나는 이런 놀이가 단지 어린시절의 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다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의 어른들은 놀 줄을 모른다는 말이다. 모든 인생을 돈 버는 것에 소진하고,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티브이를 보거나 쇼핑에 쏟는다.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오락을 찾을 뿐이다. 연극, 오페라를 감상하거나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닌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오락이나 여흥은 어린시절의 그런 놀이가 주는 힘을 상실한 것 같다. 현대인의 오락과 여흥이 우리를 놀

이의 원초적 힘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주관적인 자기표현에 불과하다는 데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만 놀 줄 알지 삶 자체가 놀이로 승화되는 경험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다시 내 어린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자. 밤낮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쏘다니며 노는 것만이 아니라 혼자서도 재미있게 놀았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끌어 당겼다. 그 당시에는 모든 물자가 궁핍한 시절이라서 그런지 헌잡지, 커피병, 카메라필름, 대나무로 된 비닐우산 받침대, 전축 바늘 등등, 하여튼 모든 일상의 사물들이 나를 놀이의 세계로 끌어들었다. 심지어는 대못도 즐거운 장난감이 되었다. 천호동으로 이사 온 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인데, 그 이전에는 삼선동에서 살았다. 큰 길에 나가면 전차가 다녔다. 우리는 대못을 전차 레일에 올려놓고 전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운이 좋으면 전차에 의해서 납작한 철판으로 변한 대못을 건질 수 있었다. 그것의 한쪽 날을 숫돌에 갈아 칼을 만들었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칼과 칼집을 만든 횟수만 해도 끔찍하게 많을 것이다. 아주 작은 소모품에 불과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물건을 만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창조적 기쁨이라는 건 황 아무개 박사가 ‘줄기세포’를 통해 복제기술을 발견해냈을 때 못지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집에서 버려지는 물건을 40년 전의 내가 얻을 수 있었다면 매일 경충경충 뛰면서 좋아했을 것이다. 온갖 종류의 예쁜 병들이 거의 매일 나온다. 하루 종일 딱지를 접어도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고급 재질의 잡지가 수두룩하다. 우리 집 딸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왜 그 아이들은 이런 것에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까? 생존에 매달려 있는 40년 전과 풍요를 구가하는 지금을 그대로 비교한다는 게 우습긴 하지만 놀이의 힘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안타깝다.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놀이의 강제력에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할 텐데, 환경이 그걸 막고 있는 것일 테지.

일상을 거의 놀이로 여겼던 그런 어린시절의 경험이 죽을 때까지 그 힘을 잃지 않을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인식이 필요한 것 같다. 하나는 놀이는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하는 궁극적인 삶의 내용이라는 인식이다. 직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목사 주제에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은 않고 놀 생각만 하다니 참으로 딱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찌겠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니 말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노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인 셈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놀만한 것이 이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놀고 싶어도 놀 게 없다든지, 아니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놀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나도 그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내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그것대로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놀이에 심취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이런 생존경쟁의 구조와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게 문제일 뿐이다.

오늘(11월10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를 나서는 데 경우 첫돌 지낸지 얼마 되지 않았을 아이가 자기 아빠와 함께 산책하는 게 눈에 띄었다. 그 젊은 아빠는 자기 아이가 그렇게 걷는 모습을 기특하다는 듯 눈을 떼지 않은 채 바깥 뒤를 따르고 있었다. 저 아이에게는 걷는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까? 기어 다니다가, 또는 아빠의 품에 안겨 있다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다니. 그 절묘한 중심잡기. 나도 그 아이의 희열에 한몫 끼고 싶다는 심정으로 자전거의 속도를 한껏 늦추면서 땅위의 중력을 온몸으로 느껴보았다. 이런 중력을 실제로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놀이 중의 하나일 것이다.

혹시 바람과 놀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게 무슨 놀이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이 된 다음에 내가 경험한 바로는 바람과의 놀이보다 더 재미있는 건 별로 없다. 햇볕과 놀아본 경험은 있으신지? 한국의 여성들은 피부를 보호하느라고 햇빛을 싫어하는데, 직접 햇빛과 대면하기 싫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놀아보면 좋겠다. 혹시 소리와 놀아보신 적이 있는 지? 이런 놀이를 모르는 사람은 참된 놀이를 모르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오락과 여흥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놀이의 강제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위에서 약간 신비주의자처럼 설명했는지 모르지

만 사실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물과 인간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근원적인 놀이와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조금 경솔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놀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2004.10.13.)

즐기세포 시대 앞에서

황우석 교수의 즐기세포 연구가 전 세계의 생물학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지성인들과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미래에 관해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끼친 것 같다. 기초학문의 황무지나 진배없는 한국에서 이런 개가를 올렸다는 건 황우석 박사의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벨상 수상을 추진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정부에서는 연구비를 무한정으로 지원하겠다는 말도 있고, 이곳저곳에서 밀려드는 강연 초청으로 황 교수가 몸살이 날 정도라고 한다.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한 거의 일방적인 찬사 물결 중에서도 약간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 대표적으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내심으로 반대하지만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성명서를 내지 않은 선에서 매듭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이런 연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외신이 들려온다. 가장 진보적인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가장 우익적인 부시가 결국 이번 연구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게 신기하게 보인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이런 연구 결과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이 질병치료에서도 크게 갈린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며, 부시의 입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까지 손을 댈 수 없다는 보수적 기독교 신앙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결과는 같게

나왔다.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화당의 일부 지지에 힘입어 배아복제 연구를 위한 정부 지원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니 한국의 상황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무엇이 논란의 핵심인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는 근본적으로 루게릭 같은 난치병 치료에 가장 어려운 관문을 열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한다. 내가 전문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를 난자와 결합해서 만든 배아를 14일 동안 배양하면 줄기세포가 조성된다고 한다. 그 배아는 무슨 장기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손상된 장기에 이식함으로써 원상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면 황우석 교수의 연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윤리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아를 14일 동안 배양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를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게 과연 정당한지 아닌지 아직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줄기세포는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배아 상태에 돌입했다면 생명의 초입에 도달한 것인데, 그것을 소모품처럼 다루어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언급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으니 접어두기로 하고,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문제만 짚도록 하자. 난치병 치료를 이렇게 생명윤리와 민감하게 연결된 배아를 통한 줄기세포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게 지혜로운지에 관한 질문이 그것이

다.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는다고거나 인공 장기를 정밀하게 만드는 것도 그런 치료의 한 방법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외국에서 짐승의 배아복제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에 사람의 배아복제에 관해서 소극적인 이유는 이런 생명윤리의 근본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런 연구에는 여성의 난자가 실험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있다. 실험의 정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난자의 수요도 적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성의 난자가 실험용으로 소비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난치병 치료라는 인간애적 사명을 위해서 그런 비인간적인 상황을 일시적으로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연구가 계속 앞으로 진행할 경우에 인간 자체가 기계적인 대상으로 변질될 위험성은 좀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성들이 미인이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듯이 앞으로 난치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더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경제적 능력이 그 인간의 건강과 수명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줄기세포 은행 운운하는 걸 보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리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배아복제와 줄기세포를 통한 건강한 삶과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길이 인간의 미래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지만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서 자리한 인간의 생명현상이 이런 줄기세포 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천년 후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의 과학이 나름으로 예방조치를 하겠지만 인간 생명에는 그런 과학기술의 조치로 전혀 예방할 수 없는 힘들어 작용한다는 점에서 염려를 지울 수 없다.

이제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아직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지만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중지시킬 수 없을 것이다. 과연 그 안에서 난치병을 치료해주는 귀여운 요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인류 전체를 끔찍한 파멸로 몰아넣을 괴물이 나올 것인지 확실한 게 우리에게 없다. 이런 연구 업적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하겠지만 인간과 세계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 업적에만 흥분하지 말고 훨씬 냉철하게 종합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5.6.1.)

밤비

오늘밤(10일)에도 교회에서 밤 11시 20분쯤 집으로 오기 위해 나섰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걷는다. 비가 심하게 올 때는 승용차를 탈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우산을 들고 걷는다. 오늘 늦은 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안개처럼 내려앉는 비를 보셨는지. 오늘밤 비는 얼핏 보면 잘게 부셔진 눈가루 같기도 하고, 수증기 같기도 하고, 위에서 말한대로 안개 같기도 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주 안에서 오직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비 현상은 놀랍도록 황홀하다. 그 현상 자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인 차원에서도 신비롭기 그지없다. 바다, 호수, 대기, 구름, 그리고 식물의 뿌리와 줄기와 잎, 우리 인간 몸, 그 안의 혈관에서 이 물이 순환하고 있다. 그 한 부분이 오늘밤에 동화 속의 나라처럼 내게 찾아온 비였으니,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나.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나도 어릴 때부터 비를 무척 좋아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 우산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좋았고, 더구나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가면서 느끼는 친구의 체온도 좋았다.

오늘 저녁을 잠시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치킨 배달원에게 말을 건네보니 이런 날은 배달도 많다고 한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불편한 탓도 있겠지만 이런 날씨가 입맛을 당기는 것 같다.

입맛이 돌기 전에 이미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새롭고 신기하고 신비롭게 바라보고 사는 것 이외에 더 큰 행복은 이 세상에서 없으리라. 더구나 그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다면 더 큰 즐거움이리라. 잠시 손님처럼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2005.6.10.)

하양에서 안동 북후면까지

오늘 아침 7시에 10년 된 우리집 승용차 아반떼를 끌고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긴 여정의 운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양에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의 와천, 청통 IC를 타기까지는 10분 정도, 아주 사뭇한 거리였다. 거기서 북대구를 거쳐 중앙고속도로로 접어 들었다. 어제 기상예보로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침나절, 날씨는 운전하기가 좋았다.

도대체 하양에서 안동의 북후면에 있는 경안대학원 신학대학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건가? 주변 몇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제각각이었다. 3시간은 족히 걸릴 거라는 사람, 1시간 반이면 된다는 사람, 심지어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은 "고속도로로 가시죠? 그러면 한 시간이면 됩니다." 하는 거였다. 남안동 틀게이트까지는 금새 도착했다. 차가 밀리지도 않고, 철곡을 지나면서 60km(?)라는 도로표지판이 눈에 띄는걸 보면 실제로 거리도 짧은 것 같았다. 남안동에서 안동시내를 거쳐 영주 국도로 한참 갔는데, 그게 거의 35분 정도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신학교까지 1시간 50분이 걸렸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천천히 나오는 건데 공연히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강의를 하고, 이 강의는 원래 이종성 박사님이 하시던 건데 너무 멀다면서 지인을 통해서 나에게 부탁이 왔다. 중간에 부탁한 사람의 얼굴로 있기도 하고 해서 격주로 가는

걸로 하고 말았다.

그건 그렇고, 오후가 되자 국지성 소나기가 제법 많이 쏟아졌다. 오후 5시에 신학교를 나섰다. 어떻게 한다? 다시 고속도로를 그대로 거꾸로 타고 가느냐, 아니면 의성을 거쳐 국도로 돌아가느냐, 이게 문제였다. 그래도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심심하지도 않고, 원래 운전은 고속도로보다 국도가 운치가 있는 법이다. 제법 많은 비가 쏟아지고, 중간에 어두워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는 했지만 국도의 재미를 놓치기 아까워 국도로 접어들었다. 안동에서 의성까지는 시원한 4차로였다. 그런데 얼마나 비가 세게 쏟아지든지, 위도우 브러쉬를 바쁘게 움직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도 그 기분은 괜찮았다. 강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마음도 활가분하고, 뒤늦은 장마비가 내리고, 그래도 차량은 많지 않았으며, 시골집들과 벼가 익어가는 들을 가까이 맛볼 수 있어서 국도를 달리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의성을 지나서부터는 다시 전형적인 2차선 국도였다. 운전은 이 맛이야. 급한 커브,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지만 그래도 노면이 미끄러워 차가 휘청하는 걸 느끼는 운전이라니, 그래 이 맛이야. 그런데다가 FM 방송국에서는 텔런트 김미숙(?) 씨가 진행하는, 제목은 잊었지만, 아무개 프로그램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금상첨화가 아니고 무엇이랴? 이미숙의 멘트는 격이 있었다. 내용이야 작가 언니들이 써주겠지만 어떤 내용이라든 이미숙은 다른 맛으로 소화하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이런 방송을 전혀 듣지 않았는데, 오늘은 운전 덕분이 이걸 들을 수 있었다니... 그녀가 오늘 클라라 스타나

(?)라는 불운의 피아니스트를 소개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어쨌든지, 그 클라라는 유대인 여성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노 연주실력만이 아니라 그녀의 외모는 그 어떤 배우보다 뛰어났다고 한다. 채플린은 자기가 생각하는 천재가 세명 있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과 함께 클라라도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한다. 18살인가, 그때 그녀는 못쓸 병에 걸렸다. 그 병명도 내가 까먹었다.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야만 했고 외모는 흡사 악녀같이 변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년에 자기의 인생은 신의 축복이었다고 말한다. 평생 벼랑 끝에서 있었지만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로 결국 벼랑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 말이다. 과연 교회의 설교가 이런 감동을 전달하고 있을까? 그냥 이미숙의 잔잔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는 그 클라라의 이야기가 주는 감동이 교회에서도 맞볼 수 있는 것일까?

하양에 도착하니 딱 2시간이 걸렸다. 고속도로보다 10분 더 걸렸다. 비가 온 걸 감안하면 5분 차이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다가 고속도로는 4천5백원(?)의 통행료도 냈으니 앞으로는 계속 국도를 밀고 나가야 할까보다.

비오는 날 국도의 곡에 운전, 이건 가끔은 해볼만 하다. 빠진 이야기, 국도에서는 도로 옆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즐길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요즘 하양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코스모스가 안동, 의성, 그 밑으로 활짝 피어 있었다. 모두들, 즐거운 추석이 (2005.9.14.)

연예 공화국

내 딸이 다니는 대학교는, 물론 다른 대학교도 비슷하겠지만, 봄가을로 축제를 여는 것 같다.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니까 ‘총학’에서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끌어들이기에 정신이 없다. 축제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날 밤에 열리는 전체 모임이다. 노래와 춤, 장기대회 등등, 흥겨운 여흥으로 진행되는 그 모임에는 반드시 유명 연예인이 초청된다.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가수라든지 아니면 유명 MC가 온다. 그들을 초청하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는 말도 있던데, 그건 과장된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지불되기는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재기발랄한 대학생들이 스스로 사회를 보면서 재미있게 놀 수는 없을까? 놀 등록금 투쟁이다, 뭐다 하면서 자신들은 축제 한번 여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마지막 날 밤은 대개 불꽃놀이로 마감하는 걸 보면, 학생회가 돈이 많기는 많은가보다.

며칠 전 집사람이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 동창회에 다녀왔다. 아마 10년 단위로 그런 행사를 하는가보다. 대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터볼고 호텔 컨벤션 홀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날도 예의 전문 MC와 백댄서들이 등장했다고 한다. 오십이 다 된 회원들에게 게임을 시키고,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렇게 한바탕 놀았다. 사람이 놀 줄 알아야겠지. 그러나 스스로는 놀 줄도 모른다. 전문 연예 기획사를 불러와야 만

놀 수 있다면, 이건 노는 것도 아니다.

티브이 공중파 방송은 초저녁부터 심야까지 연예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연예인이나 아니면 연예인 못지않은 일반인들이 모여서 잡담을 나누고, 흡사 초등학생들의 소풍날과 비슷한 게임과 춤숨씨를 흥내내고 있다. 또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는 드라마 천국이다. 이런 티브이 프로그램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놀 줄도 모르고, 어른이 돼서도 노래방 말고는 어디 가서 신명나게 놀 줄 모르게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연예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원래 옛날부터 풍류와 가무를 즐기던 민족이니까 그런 기질을 버릴 수도 없고, 어떤 점에서는 그걸 꼭 비난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노는 것도 앞뒤 좀 재야 할 거 아닌가 말이다. 하기가 삶을 가장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종교마저 이런 연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마당이니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요즘 미션 스쿨마다 학생들의 채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기에 정신이 없다고 한다. 채플 자체를 흥미 위주로 꾸미다보니 여기에 동원되는 이들도 역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안성맞춤인 이들로 집중된다. 그리스도인 탤런트, 가수, 그리고 개그맨까지 대중동원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가리지 않는다. 예배는 주로 청소년 취향의 노래, 춤, 간증 등으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강제로 예배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건 그렇다치고,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예배를 이렇듯 연예

프로그램처럼 운용한다는 건 아무리 선교목적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좀 심한 게 아닐까 모르겠다.

앞으로 신학교에서는 연예인을 키우듯이 목사를 교육시키는 게 훨씬 바람직할지 모르겠다. 가능한 수려한 외모에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피치 기술을 확보하기만 하면 청중을 얼마든지 설득해나갈 수 있다.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 청중들도 더 이상 말씀과 역사의 영성이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심리적 영성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장년들 집회도 역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의 종교적 여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대사조에 맞은 목회자는 엔터테인먼트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신학교는 하루라도 빨리 연예 기획사 전문가를 강사로 세워야 한다. 필자가 이렇게 조언하지 않아도 이미 신학교에서는 이와 비슷한 커리큘럼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교회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필자는 그걸 단정할만한 입장이 아니다. 다만 야훼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이라는 신학적 고백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종교적 흥미에 치우치는 교회는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구약시대부터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가시적인 방식으로 청중들의 흥미를 끌어내려고 했던 우상과 선명하게 투쟁하셨다. 야훼 하나님은 ‘쉐마’, 즉 ‘들으라!’는 말씀으로 인간을 만나셨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예언하게 하였고, 이 역사에 정의와 평화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반해 풍요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근동의 신들은 화려한 의상과 춤과 노

래와 먹거리로 사람들을 만났다. 그 신들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지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경험시키려고 했다. 오늘의 교회가 말씀과 역사의 깊이는 상실하고 경박한 리듬과 감성적 음률의 복음찬송, 율동, 프로젝터 등 시청각 재료에 치우친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심층적 만남보다는 사람들끼리의 감정에 매달린다는 증거이다. 이런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소진될 것이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에 시달릴 것이다. (2006.4.30.)

월드컵 소고

공식일정으로 6월9일부터 7월9일까지 FIFA(국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월드컵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12개 도시에서 열린다. 지난 2002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한 월드컵에서 우리는 4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 당시 ‘붉은악마’의 응원 열기도 엄청났다. 아마 “대-한민국 짹짹 짹 짹!” 하는 구호를 모르거나 한 번이라도 외쳐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실제 게임이 열리는 운동장만이 아니라 시청광장, 역 광장, 대학교 운동장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붉은 티를 입고 응원을 보냈다는 건 한민족에게 내재한 신바람의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동방의 작은 나라, 현재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꺼림칙한 느낌도 없지 않다. 월드컵에 몰려든 그 군중은 왜 K리그를 외면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월드컵의 군중들이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자극시킬 수 있는 사건만, 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타 선수들만 필요했지 그것의 저변인 국내 리그와 거기서 뛰는 일반 선수들은 필요 없었다.

지난 연말에 터진 황우석 교수 사건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읽을 수 있다. 황우석의 사기 가능성을 방

송한 MBC가 ‘피디수첩’ 프로그램을 즉각 폐쇄하고 방송국 전체의 존폐 위기까지 다다르게 한 힘도 역시 기업측에 광고계약을 파기하게 만든 민중들의 열광적 행동에서 나왔다. 미국의 심장부에 태극기를 꽂고 왔다는 황우석 박사의 언어기교에 매료당한 그들은 모든 합리적 논의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열광에 사로잡혀 있었다.

월드컵에 쏟는 에너지가 국내 리그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 것처럼 황우석에게 쏟았던 그런 민중들의 지지가 과학발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필자가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한마디만 하자. 우리 민중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을 대리만족시켜줄 수 있는 스타다. 축구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월드컵에 마취되는 것도 거기에서 대리만족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도 광신도처럼 황우석에게 쏟린 것도 역시 그에게서 대리만족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모르겠다.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는 <한겨레 21, 5월30일>에 기고한 글 “기죽지 말고 원 없이 놀자”에서 한국인을 ‘놀이하는 인간’의 전형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특유의 냉소적 시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내 놀이가 소중하면 남의 놀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남의 놀이를 비난한 것도 놀이다. 각자 기죽지 말고 원 없이 놀자.” 복선을 깔고 그 글 자체에 대해서는 토를 달 게 없지만, 다만 원 없이 놀자는 말이 과연 한국 젊은이들의 월드컵 신드롬과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똥을 배출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심리적으로 쌓여 있는 찌꺼기를 그런 놀이에

서 쏟아내야만 생존할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이성적 판단 운운하는 게 우스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 데서나 똥을 누면 곤란하듯이 열광적인 행태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렇다. 결국 이런 행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 의미하게 소비될 수밖에 없는 스타 중심의 정서를 강화 한다는 점에서 대중 즐거우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곤란해 보인다.

이런 현상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더 리얼하게 발생하는지 모른다. 월드컵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대형 교회의 종교현상에서 나타나는 광신적 태도가 일란성쌍둥이처럼 흡사하다. 월드컵 게임에 열광적 지지가 국내 축구 리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형교회 중심의 교회 부흥이 전체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닮았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스타로 부각되지만 일반 선수들은 별 볼일 없다는 사실과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스타가 뜨지만 작은 교회 목사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사실도 역시 비슷하다. 월드컵에 몰두하는 군중들이 실제로는 축구에 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형교회에 몰리는 신자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일치한다.

힘들고 지겨운 세상살이를 민중들이 그런 방식으로라도 극복하면서 살아가면 됐지 무얼 그렇게 따지냐 하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중성을 강조하는 분들 앞에서 필자는 할 말이 궁핍해진다. 인식론적 훈련이 없는 일반 대중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기복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일 수밖에

에 없다는 막강한 주장 앞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영성이 건강해질 수 없으며, 삶의 신비를 들여다보는 영적 시각이 풍요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약간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지구촌을 달구게 될 축구 열기는 생태계, 제삼세계, 소수자 인권 등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의제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우리가 잠시 축구 스타에 열광하는 데 머물지 말고 무명의 선수들까지 나름으로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초와 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문제는 한국교회에 똑같이 적용된다. (2006.6.6.)

이상난동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서향이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겨울철에도 낮에는 보일러를 거의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창호시설이 시원치 않습니다. 찬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매년 저는 12월초에 테이프로 창문 사이를 봉했다가 3월말이 되면 풀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에 게으른 사람인데 찬바람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밤에 잘 때 얼굴이 시리고 거실에서 발이 시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테이프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 올 겨울은 춥지 않은지요. 춥지 않은 게 뭔가 거림칙합니다. 좀 귀찮아도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추워야 하는데, 이번 겨울은 정말 이상하군요. 미래학자들과 기상학자들이 경고하는 대로 지구의 전체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 상승폭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면 지구에서 생명활동은 끝입니다. 빙하기가 돌입해도 문제이지만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을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사실 지구는 매우 아슬아슬한 상태로 생명이 가능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위태로워서 이걸 생각하기만 하면 밤잠을 자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 말이 좀 과장처럼 들리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생명 조건의 경계에

서 있는지는 제가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에 조금이라고 가까이 다가가거나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면, 그리고 지구의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심해지거나 기울기가 줄어들기만 하면 지구의 많은 생명체들은 지구에서 버터내지 못합니다. 그중에 인간이 가장 취약하겠지요. 개미나 바퀴벌레들은 아무리 악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버터낼 가능성이 높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멸종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그런 날이 올까요? 이런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내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저도 오늘 밤 자다가 돌연사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듯이 지구에서 인간이 멸종할 가능성을, 그것이 아무리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지구에는 공룡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멸종하리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연히 우리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지 마라,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직면해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1억년 후에도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 존속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그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더구나 성서와 배치된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겠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서와 신학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성서가 인류 이후의 시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

다. 그러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세계를 시작하지 않으실까요? 그 전혀 다른 세상이 무엇일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소관일 뿐입니다.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퍼지는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 겨울은 추위가 없습니다. 이건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명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지금 이 시대처럼 지구를 혹사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매일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걸 경산사에서 모아 태웁니다. 매일 자동차를 탑니다. 일회용 그릇도 사용합니다. 그걸 땅에 묻습니다. 이 지구가 어느 정도나 버틸까요? 이 지구의 생태 메커니즘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파괴될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걸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듯이 생태의 균형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조금 천천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2만 달러 수입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런 위기를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지구의 위기는 한순간입니다. 우주에서 매우 외로운 별, 지구가 없어져도 우주에는 별 큰 지장이 없는 별, 그런 지구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다스리라고 책임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계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때 노아홍수가 일어났듯이 지금 현대인의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때 다른 방식으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지 않은 겨울을 보내며 저는 웬지 불안하군요. (2007.1.14.)

아이스 맨

얼마 전 늦은 밤 티브이를 통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만년설이 쌓여 있는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 한곳에서 냉동된 상태로 죽어 있는 어떤 한 남자가 발견되었다. 그 ‘아이스 맨’은 자그마치 5천 년 전 사람이었다. 그가 발견된 건 내가 기억하기에는 2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타임지(誌)인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지(誌)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주 오래 전에 그런 기사를 읽은 것 같다. 그런데 그동안 오스트리아의 고고학자들은 이 아이스 맨에 대해서 나름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시켰다. 아이스 맨이 죽은 계절과 죽은 이유 등에 대한 결과들이 나왔다. 위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분해하거나 엑스레이 사진 판독을 통해서 아이스 맨이 전쟁을 하다가 가을에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어떤 법의학자가 다른 연구 방식을 통해서 고고학자들과 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했다. 티브이 프로그램은 법의학자가 어떻게 고고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뛰어넘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같은 사안을 두고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론적 능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5천 년 전의 시체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고학자들과 법의학자들은 그에게 말을 걸어서 무언가 대답

을 찾아내고 있다. 그런데 그 시체를 향해서 정확하게 말을 거는 게 중요하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성서 텍스트와 우리 사이에도 2천 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다. 성서 텍스트는 스스로 말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거는가에 따라서 성서도 우리에게 말을 할 뿐이다. 앞서 아이스 맨의 죽음과 관련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고고학자들처럼 우리도 역시 성서 텍스트에 대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그중의 하나만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엑스레이 사진을 앞에 두고 고고학자들은 그냥 지나치고 말았지만 법의학자는 갈비뼈 뒤쪽에 있는 어떤 물체를 잡아냈다. 결국 그것은 아이스 맨의 등에 꽂힌 화살촉이었다.

왜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놓치고 법의학자는 잡아냈을까? 다른 이유는 없다. 법의학자인 그 사람의 눈이 그만큼 날카로웠다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 같다. 문화유산도 그렇고, 죽은 시체도 그렇고, 성서 텍스트도 역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과 연관되어 있다. 시, 그림, 음악, 역사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왜 목사들은 성서를 알려고 하지 않을까? 엑스레이 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하려면 그런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해야하는 것처럼 성서를 정확하게 읽으려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닦아야 한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성서읽기는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말이다. 일단 성서를 읽을 수 있어야 믿든지 않든지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우리는 성서를 읽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가운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만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성서를 읽을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만큼 큰 착각도 없다. 아이스 맨에 관해서 새로운 결과를 제시한 법의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아는 것도 일부에 불과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시체를 부검해야 한다고 말이다. 시체 안에 그 대답이 놓여 있다는 말이다. 시체를 부검하려면 매우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위에서 발견된 밥을 분해해서 죽음의 원인과 시간을 찾아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성서를 부검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안에 은폐된 사실들을 찾아낼만한 능력이 있을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신 청중들에게 재미를 제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는 흡사 부검의가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부검하는 시늉만 하든지, 또는 부검을 연극이나 쇼처럼 꾸미는 것과 같다. 성서는 말이 없다. 그는 우리가 어느 깊이에서 말을 거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대답할 것이다.

아이스 맨은 5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삶이 주어졌을 것이다.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을 것이며,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얼마나 즐거워했겠는가. 그가 무슨 연유로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뒤에서 쏜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의 지나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이다. 그의 주검 위로 눈이 쌓여 썩지 않은 채 오늘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와 우리 사이에는 5천년이라는 세월이 놓여 있다.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이 아이스 맨처럼 살다가 죽었는가.

지금 우리도 그 친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중의 일부는 땅에 묻혀 우연하게 미라로 남을지 모른다. 그러면 5천년 후 우리의 후손이 우리를 부검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고대 사회지만 오늘 우리에게서는 현시대인 이 시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 다음 5만년 후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나는 중학생과 같은 자세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가 분명했다면 오늘 우리가 과거로 돌려진다는 것도 명백하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했다가 다시 사라지게 하는 이 시간은 무엇이란 말인가?

알프스 꼭대기에서 냉동인간으로 발견된 아이스 맨이 살던 시대에 비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엄청나게 풍요롭지만, 시간에 의해서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배아줄기 덕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니 1천200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의 힘 앞에서는 당해낼 방법이 없다. 도대체 우리가 5천살 까지 장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아니 5천년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아이스 맨이 냉동인간이 아니라 그런 나이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해보자.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햇수만큼 사는 게 적당한지 알 수 없다. 사람에 따라서 60년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90살이 되어도 죽기 싫다고 하니까 이런 건 객관적인 기준으로 뭐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이스 맨이 살던 5천 년 전과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론 다른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걸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단 말인가? 기

독교인들은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 되었다고 믿는다.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았다. 어떤 사물과 생명이 공간 안에서 움직일 때만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시간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하늘, 땅, 물고기, 꽃, 사람은 분명히 공간 안에서 존재한다. 이런 존재하는 것들이 가능하려면 시간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의 꿈 안에는 사물들이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종말과 시간은 어떤 관계인가? 종말에는 시간도 정지하는가? 시간이 정지한다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물들도 정지하는가? 종말 이후의 하나님 나라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영원이라는 게 시간을 넘어서는 의미라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의 생명은 공간이 없다는 건가?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게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명증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작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행복의 기준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 애벌레가 어찌 나비의 세계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비록 시간과 공간 안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지만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벗어나 종말론적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신 예수에게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맡김으로써 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날을 기

다리면서 살아갈 뿐이다. 그때가 오면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게 곧 시간의 신비 아니겠는가. (2009.2.7.)

영성과 세상 경험

지금 우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만 알고 있다. 작은 예를 든다면 너무 큰 소리나, 너무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사물을 인식할 수 없다. 물질의 소립자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전자 현미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무한히 작은 미시의 세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전자 망원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무한히 큰 거시의 세계를 확인할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지금 무한히 작은 세계와 무한히 넓은 세계를 관념으로만 추정할 뿐이지 실제로는 경험할 수 없다. 아니 무한은 관념적으로도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얼마나 무한할까? 그 무한히 넓은 우주에 1mm만 더 넓으면 그 무한 개념은 파괴된다. 이런 미시와 거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먼 이야기니까 접어두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자.

이 지구에는 왜 물(水)이 있을까? 지금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물리, 화학문제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물을 직관하려는 것뿐이다. 나무나 돌은 그냥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왜 물만 일정한 형식이 있을까? 물론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액체의 성질이 바로 그 대답일 것이다. 그러나 왜 그게 이 지구에 존재하게 된 것인지, 그게 신기하다는 말이다.

물론 과학자들이 나름의 대답을 주긴 하겠지만 그것이 곧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현상에 대한 논리적 설명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의 과정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차원은 그들에 의해서 열리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대답할 것이다. 만약 그 주장이 단지 교리적으로만 외쳐진다면 그것도 역시 과학자들의 현상적 설명과 다를 게 없다. 과학은 실증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며, 신학은 도그마의 지평에서만 접근하는 것이다. 실증도 아니며 도그마도 아닌 접근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해야만 하는가? 이 대답은 뒤로 미루고 이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가, 하는 점을 한번 짚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답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왜 이런 모습일까? 토끼와 감나무 중간 쯤 되는 생명체는 왜 없는 것일까? 왜 이 세상은 식물과 동물이 구분되었으며, 인간은 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었을까?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 미야자키의 작품에 종종 나오지만 새처럼 날아다니거나 노루처럼 뛰어다니는 나무가 이 세상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거나 진화의 방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새는 날아야 하고 뱀은 기

어야 하고 사자는 달려야 한다. 우리의 오랜 경험이 그것을 절대화하고 있다.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처음 시작했을 때 이미 이렇게 프로그램화한 세상은 아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세계로 발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흡사 수십만 마리의 정자 중에서 한 마리가 수정되어 한 생명체가 시작되고 그 뒤로 오랜 세월을 걸쳐 한 인간이 세상에 나오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인간의 코가 두 개일 가능성도 있었으며 눈이 하나일 가능성도 있었고, 날개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간혹 여섯 개의 손가락을 갖고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인간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인간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말도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다. 여기 컵이 하나 있다고 하자. 이게 무엇까? 이 컵을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는 동일한 입자이다. 컵과 인간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을 화학 분해하면 철, 인, 우라늄, 탄소 등등이 나오는 것처럼 물질과 인간 몸은 서로 하나다. 어떻게 컵과 인간이 하나라는 건 말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런 걸 어찌겠나. 다만 다른 건 이런 소립자, 혹은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헬라 신화에는 신과 인간 사이가 매우 친밀하며, 동물 모습을 한 인간, 거꾸로 인간 모습을 한 동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성서에도 천사와 악마가 등장한다. 많은

문학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신화를 기본 소재로 구성된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여러 종교와 문학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중층적이라는 뜻이다. 신화의 방식이 아니면 도저히 해명될 수 없는 이 세상, 이런 운명, 이런 역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나름으로 대답을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바로 문학, 예술, 종교이다.

이제 우리는 위에서 잠시 뒤로 미뤘던 대답을 찾은 것 같다. 이 세상은 실증과 도그마가 아니라 신비 안에서 조명되고 해명되어야 한다. 신비는 곧 영적인 세계를 가리킨다. 종말에 이르기까지 은폐되어 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로 보려는 사람들이 확보해야 할 인식론의 가장 궁극적인 토대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영적인 능력을 성령이라고 한다.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다. 안타깝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우리는 아직 그 성령을 모두 아는 게 아니다.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게 곧 신학자의 기본 태도이며, 설교자의 기본 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곧 이 세상을 신비롭게 만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는지. 그것이 곧 ‘영성’이 아닐는지. (2009.2.7.)

외로운 사람들에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나름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산다. 외로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로움의 실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그 외로움을 잠시 망각한 것에 불과하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셨으니까 외로움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다. 이미 공생애 중에 날짐승과 들짐승도 각각 거처가 있지만 당신 자신은 머리를 둘 만한 곳이 없다고 호소하신 적이 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사박 다니!”는 절대 고독의 실증이다. 인간이 아무리 외롭다고 하더라도 신으로부터 유기당한 사람의 심정 같은 게 있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처절한 경험을 하신 것일까?

호모 사피엔스 이후로 인간은 숙명적으로 외로움을 안아야 한다는 사실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 외로움을 잊고 사는 것 같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라디오와 티브이,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형편에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다. 이렇게 외로움이 없는 삶이 행복한 것일까?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할 정도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일단 괜찮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런 실존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인간

으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외로움을 통해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자체를 부정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이라는 말이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외로움이 파고들 수 없는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한다. 이런 모습은 세속적인 삶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외로움을 경험할 만한 기회가 없다. 온갖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느낄 수 없다. 예배에서도 두 손 들고 찬양한다거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때맞추어 ‘아멘’으로 대답해야하니까 절대생명과 개인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중적인 종교프로그램에 젖어둠으로써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 눈에는 대개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모든 행위들이 외로움을 망각해보려는 안간힘처럼 보인다.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외로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구성요소이다. 당분간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외로움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이 혼자 잠을 자야 하는 것처럼 다시 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잠을 잘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신 죽을 수도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숨을 쉴 수는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배설해줄 수도 없다. 이런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혼자서 살아간다는 말이

된다.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죽고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숨이 붙어 있는 한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궁극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 어쩌면 외롭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친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게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서로 사람들을 찾는 걸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말자. 고향에 남아있는 노인들이 외롭게 살다가 자식, 손자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행복해지기도 한다. 이런 일상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손자들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일상의 행복이 결국 상대적인 게 분명하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나는 가끔 남북 이산가족이나, 어려서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티브이로 보면서 그들과 함께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런 감격이 얼마나 오래갈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는 건 순간이고, 그들과 더불어서 힘들게 살아가야 할 길은 멀다.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남아있어야지 그것이 해결되면 얼마가지 못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매너리즘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말이다.

나는 인간이 외로움을 해결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떨쳐낼 수는 없다. 그 외로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히 수고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애를 쓸수록 외로움의 강도는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며 살라는 말일까? 누가 외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말했다. 그건 우리가 역지로 벗어내야 할 저주가 아니라 그냥 실존일 뿐이다. 인간은 먹어야 산다는 명제처럼 그런 구성적인 요소이다. 그걸 그대로 안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게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외로움이야말로 생명의 세계에 천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은 외로움을 단지 미화하려는 요설이 아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이런 점에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는 절대고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인간도 동행할 수 없는, 그래서 신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기 때문이다.

가을이 깊어가는 탓인지 오늘 글이 너무 칙칙했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겠다. 외롭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외로운 사람들이며, 단지 외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쓸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 안에서 얼마나 외로운 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외로움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2009.)

인간과 지령이

지령이는 촉감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박쥐는 음파로 인식하고, 인간은 시청각 모두로 세계를 인식한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생명체도 이 세계 어딘가에 많을 것이다. 혹시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방식의 인식체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소리만 해도 개가 포착하는 소리의 영역과 인간이 감각하는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 식물들도 역시 이 세계를 인식할지 모른다. 다만 우리 인간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인식 메커니즘을 모를 뿐이다. 어쩌면 아침 이슬과 나비도 역시 서로를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우리의 발길에 체이는 돌멩이 하나도 나름으로 이 지구와 소통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구 안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과 친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의 세계 인식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비록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이 매우 확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그런 현상 너머에 전혀 다른 실체를 안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령이는 자기의 촉감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만을, 그 세계만을 참된 것으로 여기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풍부한 세계가 실재하는 것처럼 지금 인간이 인식하는 이 세계도 역시 지령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지령이와 인간은 다르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지령이와 인간은 다르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 앞에 비추어보면 크게 다를 것도 없다. 그저 인식의 세계가 조금 넓다는 것뿐이다.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예술, 문학, 종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그것도 역시 절대적인 것 앞에서는 잠정적일 뿐이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별로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라는 대명제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건 다만 내가 그렇게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뿐인데, 내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면 그 대상도 역시 내 경험에 들어온 그대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다시 지령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다. 여기 큰 항아리가 있다고 하자. 그 안에 지령이가 살고 있다. 이 지령이에게는 매끄러운 촉감으로 와 닿는 항아리가 우주이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나에게는 단지 여러 물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촉감으로 느끼는 지령이의 세계인식과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나의 세계인식 중에서 어느 쪽이 진리에 가까울까? 이건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이 지령이의 상태를 나에게 비교한다면 혹시 나도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지령이처럼 이 세계를 그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신앙을 허무는 게 아닐까? 글썄, 그런 것은 접어두고,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인 부활의 세계는,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은 항아리 안에서

살아가는 지렁이처럼 부분적인 인식론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든 표상할 수 없는 세계이다.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은폐되었던 세계의 실체가 드러나는 세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으며, 그려서도 안 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배타적인 권한에 속한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역사에 선취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참된 생명의 세계이다. 그러나 그 세계는 우리의 잠정적인 인식론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투사시켜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없다. 보상을 받는다거나 황금면류관을 받는다거나 심지어는 좋은 주택에서 산다는 생각은, 더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은 순박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희망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공연히 지렁이와 같은 좁은 인식으로 그 나라를 훼손시키지 않는 게 마땅한 게 아닐는지. (2009.3.29.)

인간은 모두 죽는다.

죽는다는 건 결국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가. 반대로 우리에게 늙음과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요즘의 문명이 가능한대로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미 인간에게 늙음과 죽음이 숙명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아니 상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절감할 수는 없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은총이라는 내 생각이 염세주의에서 나온 건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삶의 욕망은 인간이라는 종(種)이 다른 동물들과의 경쟁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터득한 본능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요소이다. 마르쿠제에 의하면 그런 욕망은 곧 '에로스'이다. 그런 본능적인 욕망이 없었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을지 모른다.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 오랫동안 군림한 인간이 여전히 그런 욕망에 의해서만 자기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생존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생존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극한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

다. 다른 동물들과의 생존경쟁을 치러야 했던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욕망에 의한 삶의 경험을 그런 경쟁이 필요 없는 시대에도 여전히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좀 더 다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죽음을 숙명으로 안고 있는 인간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도 역시 그것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 같다. 죽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만 현재의 삶이 빛을 발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삶을 수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기를 철저히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다.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자기를 죽음과 같은 정도로 축소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게 참으로 어렵다. 살아있다는 건 늘 자기를 확대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마당에 자기를 축소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미 예수님은 썩는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생성된다고 말씀하셨다.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가 자기를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빛나는 유일한 길이 아닐는지.

이렇게 말은 하기 쉽지만 그걸 자기의 삶에서 체화하기는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지도 모르겠다. 밀알의 비유를 배운 교회마저도 자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만 생명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다른 세계는 말할 것도 없다. 교회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응답하는 교회는 별로 없다. 모든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결국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보면 결국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길을 가는 거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축소하고 늙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식으로 훨씬 빛나는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는 한 이런 인식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축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인간은 그걸 죽음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게 되어 있다. 자기를 축소하고, 늙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방식으로 진정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좀 거꾸로 가는 말 같지만 생명 자체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 과연 참된 생명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간다.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축소하지 못한다. 예수가 자신에게 임박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은 물론 하나님과의 일치에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획득되는 생명이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나는 이 질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건 또 하나의 다른 질문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나의 육체적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내 영혼이 더욱 깊은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 젊음보다는 늙음을 생명의 완성으로 생각한다

는 사실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세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입장이 못 된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2009.4.1.)

finding never land

지난 주간에 두 편의 영화를 보았다. 한편은 19일 저녁에 ‘인문학적 성서읽기’ 모임과 함께 본 “신과 함께 가라”였으며, 다른 한편은 24일 저녁에 샘터교회 교우들과 함께 본 “finding never land”(이하 ‘네버랜드’)였다. 위의 것은 찬양의 영성을 추구하는 수도사들이 이 세상과의 만남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이며, 아래의 것은 ‘피터팬’ 작가가 그 이야기를 쓰게 된 일종의 후일담이다.

‘네랜드’는 ‘유토피아’다. 그런 곳은 없다. 없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없음’이 어떻게 ‘있음’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에만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것 너머의 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모르겠다.

‘네버랜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 동화의 상상력이 바로 그것이였다. 어린아이들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될 수 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를 구출하는 정의의 기사도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가능한 이런 동화의 상상력이 어른들에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만큼 지성적이기 때문일까? 우리가 그만큼 이 세계를 더 잘 알기 때문일까? 이것만큼 큰 착각도 없다. 어른들이 세상을 알다니... 거짓말이다. 착각이다. 전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살아갈 뿐이다. 이에 반해 아이들은 모른다는 사실

을 인정한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동화의 상상력이 가능하다.

물론 어른들에게도 꿈이 있다. 그들은 세계 일류가 되겠다는 꿈을 꾸다.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다. 하룻밤에도 집을 여러 채 짓는 동화를 쓴다.

아이들의 동화와 어른의 동화는 어떻게 다른가? 아이들의 동화는 그것 자체의 힘이 살아나지만 어른들의 동화는 사람에 의해서 의도될 뿐이다. 아이들의 동화는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살려내지만 어른들의 동화는 어른들을 탐욕의 주체로 만들어버린다. 아이들의 동화는 끊임 없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지만 어른들의 동화는 이미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동화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지만, 즉 자유롭지만 어른들의 동화는 그 결과가 그 사람을 철저하게 지배한다. 즉 의존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동화를 쓸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네버랜드로 여행할 수 있을까? ‘네버랜드’에서 작가는 어머니를 잃은 피터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가 옆에 있다고 상상해라.

imagination!

모든 문학, 예술, 건축, 철학은 이 상상에서 출발한다. 현실적으로 옆에 있는 게 아니지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실체로 나타나는 그것이 상상이다. 이런 상상력으로 이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동화 안으

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상상력의 세계 안에는 ‘요정’이 등장한다.

요정은 존재하나? ‘네버랜드’에 의하면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존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게 요정이다. 사랑의 요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랑의 열정에 빠질 것이다. 지나치게 실증적인 사고방식에 치우친 사람들에게는 이런 요정 따위의 이야기가 시시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이 세상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걸 인정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담소하는 중에도 옆방에 누워 자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 아이의 엄마는 듣는다. 무엇이 이 엄마의 청각을 이렇게 예민하게 만들었을까? 혹시 요정은 아닌가? 아스팔트 틈새를 뚫고 돌아난 민들레꽃을 보신 적이 있는지? 그 일을 누가 했을까? 요정이 그런 건 아닐까? 눈이 내린다. 하늘의 구름이 눈으로 바뀐 건 요정의 아름다운 지팡이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은 기독교적인 게 아닌 것 같다.”하고 시비를 걸지 마시기를. 그런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요정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큰소리치지 마시기를. 그런 요정 이야기는 우상숭배, 이단 사상이라고 욕박지르지 마시기를. 요정을 천사로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요정과 천사가 보일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요정과 천사를 보고 살고 싶으신지, 아니면 그런 힘들을 경험하지 않고 싶으신지.

나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처럼, 또는 그의 남편이었던

요셉처럼 천사의 언어를 들으면서 살고 싶다. 아니, 이미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고 말해도 좋으리라. 그들의 행복한 춤이 내 눈에 보인다. 이 세상에 요정과 천사가 가득하다. 그게 안 보인다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다.

당신은 요술과 주술을 믿는가, 하고 질문할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요술, 주술, 신앙, 영성, 신비 이런 것들을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무당의 영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그런 사람을 죽이라는 구약성서 말씀에 따른다면 이미 대답은 주어졌다. 그러나 구약성서가 왜 그런 행위를 척결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들은 생명의 신비를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폐쇄하는 쪽으로 활동했다는 게 핵심이다. 사람들의 운명을 일종의 숙명주의에 묶어놓는 행위였다.

성서는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창조행위로 보았다. 이 말은 곧 인간이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완전히 해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무당들은 자신들이 그걸 결정지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생명의 창조성을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무당들이 어떤 영적 경험을 하는지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단정적으로 말할 입장이 아니다.

오해는 마시라. 목사가 무당까지 용납하는가, 하고 말이다. 이 세상의 일들을 지나치게 선과 악의 대립으로만 보지 않는 게 좋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공산당은 무조건 나쁘다거나, 동성애는 반기독교적이라거나, 타종교는 우상숭배라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오늘 내 글이 왜 여기까지 흘러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기본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한다. 다른 데

서도 언급했다고 보는데, 아리아와 창을 섞어서 노래를 부르는 건 별로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이 세상의 신비를 열어두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계산으로 처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대한 해명은 신학자들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자, 철학자들의 몫이다. 우리는 그들의 해명에 근거해서 그것이 왜 하나님의 창조행위인가를 변증할 수 있을 뿐이다. 과학자들의 세상 해명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해명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행위라는 게 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학문이 이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부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불신앙이다. 비록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즉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근본적으로 부정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염려는 붙들어 놓아도 좋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런 갈등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한다. 쉬운 예로,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 같은 것 말이다. 여기서 이런 논쟁 자체에 대해서 알가알부하지 않겠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는 독단적인 과학자들과 독단적인 신학자들이 대결한다는 데에 있다.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분적인 것인지를 모르는 독단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부풀려지는 소모적 논쟁이다.

이만 줄여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종의 ‘네버랜드’다. 그 나라는 “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없음”이다. 그 없음이 오히려 있음의 근원이다. ‘네버랜드’와 ‘에버랜드’(ever land)의 신비로운 관계를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근원 안으로 첫발을 내딛는 것이리라. (2007년)